

말씀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밤 8

1996

별채 부록 : 어택이단





**표지 설명:**

로버트 피구에로아 형제는 건축 계획이 급격히 늘어나는 교회 회원을 제대로 감당해 내지 못하는 칠레에서 새 예배당을 짓는 일을 감독하고 있다.

**뒷표지:** 왼쪽 상단, 칠레 오소르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칼라마의 칠레인 선교사 유지니아 벨렌; 오른쪽 상단, 일요 예배에 모인 비나델 마르의 교회 회원들; 아래, 1983년에 헌납된 칠레 산티아고 성전. "칠레 - 비옥한 포도원" 34쪽 참조  
(사진 촬영: 마이클 알 모리스)

**어린이란 표지 설명:**

그림: 리츠 레먼, 고대 니파이와 같은 영웅들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나 교사 등 우리가 매일 존경하는 영웅들 외에도 우리는 물문경의 니파이와 같은 경전의 영웅들과도 친해질 수 있다. 주님을 믿는 신앙과 순종과 용기로 접철된 그의 생애는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된다.

## 일반

대관장단 메시지: 계속되는 계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2

세상적인 인기의 영합과 올바른 원리 준수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14

암벽 사이의 구멍 래리 포터 코트 ..... 20

칠레 - 비옥한 포도원 마이클 알 모리스 ..... 34

한 그릇의 땅콩 로널드 더블류 룩 ..... 48

## 청소년란

복음 시간 로리 리버서 ..... 10

가정에서의 모든 일이 잘 안될 때 잔 핀보로우 ..... 26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지 제프리 에스 맥클렌 ..... 30

제가 간구함에 주님이 응답하심 에릭 한센 ..... 33

다시 돌아옴 세라 피처월드 ..... 46

## 정기 특별 기사

애독자 편지 ..... 1

물문 메시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9

방문 교육 메시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됨 ..... 25

## 어린이란 (별책 부록)

물문경 이야기: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 ..... 2

곧고 좁은 길 조셉 비 워스리 장로 ..... 5

뉴스 속의 친구들 ..... 6

이야기: 보라색 악어 엘마 제이 에이츠 ..... 8

심심풀이 ..... 13

함께 나누는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캐런 애쉬튼 ..... 14

친구에게: 햇님이 됨 콜리스 클레이튼 ..... 16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 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피우스트

십이사도 정원총보: 보이드 케이 패커, 올 롭 패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날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랜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윌런드, 앤리 비 아이어왕

편집인: 잭 에이치 고슬린드  
 고문: 스펜서 제이 콘드, 올 라이오널 캔드릭  
 교과 과정부 관리자들:  
 관리 책임자: 로널드 올 나이튼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브라이언 케이 캘린  
 그래픽 책임자: 앨런 올 로이보그

편집팀: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올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인 보조/여러언어: 디앤 워커  
 편집/제작부장: 매리엔 마틴데일  
 제작보조: 배스 데일리  
 편집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디자인팀: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시미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켈렌  
 디자이너: 세리 록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관리: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테니즈 커비, 매튜 맥스웰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티슨  
 마케팅 부장: 조시아 헨슨

통 권: 제 365호, 제 33권, 제 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96  
 발행일: 1996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서 원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1996년 재단 법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8/94 번역 승인-8/94  
 August 1996 International Magazine of the 번역본 Korean. 96988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6,000원입니다. 일반호는 권당 500원이며, 특집호는 1,000원입니다. 성도의 빛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대만, 홍콩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 price is \$9.00 per year.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The SOUNGDO-UI POT, is published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 간-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시모어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개 간-불가리아어, 체코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러시아어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Box 26368, Salt Lake City, Utah 84126-0368, U.S.A.

**간 증**  
.....

성장하면서 저는 여러 교회 회원들, 특히 어머니의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 자신의 간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어머니께 물었을 때 경전과 탐블리 (지금의 리아호나)를 읽으라고 권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경전과 교회 잡지들을 읽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신앙을 갖고 더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1살이 되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카가얀 드 오로 선교부  
 플레이스 지부  
 카피오 다린

**예언자의 말씀**  
.....

저는 매달 예언자의 말씀을 전해 주는 리아호나 (포르투갈어 판)에 크게 감사합니다. 리아호나 를 통해 전세계에 있는 말일성도 청소년을 보다 잘 알게 됩니다.

준디아이 브라질 스테이크  
 바르지아 지부  
 펠립 코테리오 다 로차

**시 사**  
.....

저는 의로운 삶의 지침이 담겨 있는 리아호나 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사진과 삽화가 곁들여 있는 기사와 이야기와 메시지들을 즐겨 읽습니다. 다른 나라의 많은 회원들에 대해 알고, 우리가 한 신앙과 한

하나님과 한 침례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전세계 성도들에게 대해 배움으로써 제게 닦친 시련들에 용감하게 맞서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게 리아호나는 신앙의 닦이 되며, 유익과 배움을 주는 최신 기사들의 월간 모음집이라 생각합니다. 이 잡지는 즐거움의 보고입니다.

필리핀 산 파블로 선교부  
 루크반 제 2지부  
 브이 엠 데레초 2세

**제 길의 등불**  
.....

리아호나 (포르투갈어 판)는 제 인생의 기적과도 같은 경이로움입니다. 그것은 도전으로 가득 찬, 저의 위대한 지상에서의 여행길을 언제나 빛으로 밝혀 줍니다.

리아호나 의 메시지는 영혼의 참된 방향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저의 간증과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때때로 제 영혼의 한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희망을 일깨워 줍니다.

제가 특히 좋아했던 두 메시지는 "장점이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페리 엠 크리스티슨, 성도의 빛, 1995년 10월호)입니다. 저는 제 길을 밝혀 주는 이러한 메시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린다 브라질 스테이크  
 리오 도세 제 1와드  
 발레리아 크리스티나 데 소우자 페랏즈



# 계속되는 계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저**는 신성한 계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의 필요성이라는, 복음의 특별한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그렇게 인정하신 백성을 두실 때마다, 그 백성은 계시를 통해 인도되었습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138쪽) 저는 먼저, 합당하게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특히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각 회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계시와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모든 자녀와 교통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예언자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특권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부모와 지도자는 그들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계시를 받을 권리는



계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계시를 통해 교회는 미미한 시작에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계시가 계속되는 한,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전진해 갈 것입니다.

갖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신앙개조 제9조,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 하날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를 주제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과거의 계시

신앙개조 제9조의 첫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예언자를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책임을 갖고 수 세기에 걸쳐 “해의 왕국 송신소”에 주파수를 맞춰 왔던 예언자들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부나 직함이나 지위나 체구나 교육이나 학식이 예언자의 자격 요건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한데, 첫번째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뒤 합법적이고 영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을 통해 성임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11 참조) 두 번째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은 예언자를 통해 계시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알지 못합니다.(야곱서 4:8 참조)

수 세기에 걸쳐 예언자를 통해 오는 계시는 증가되어 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시험하여 이로써 너희를 증험 하리라.”(교리와 성약 98:12)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성신의 인도를 통해(아마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도 있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 기록한 사자의 방문을 통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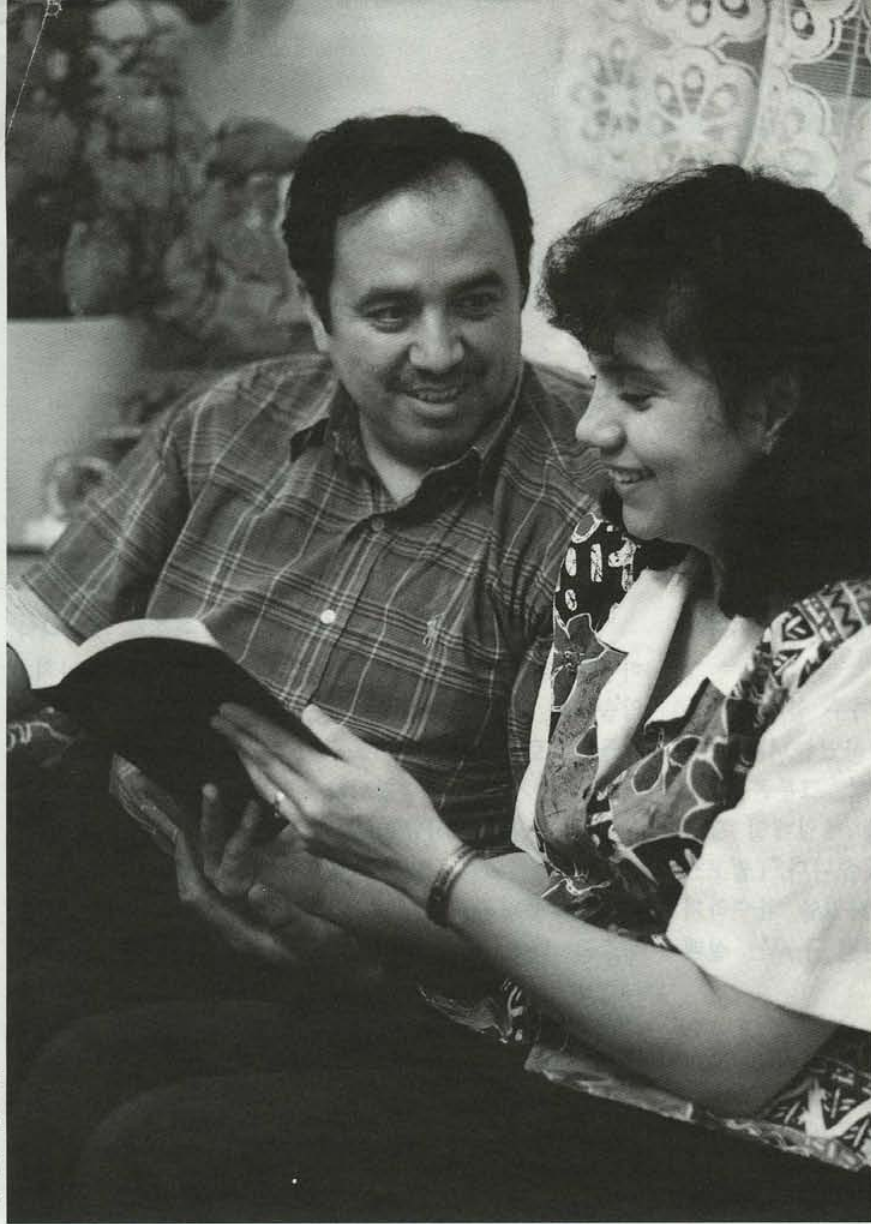
### 현재의 계시

신앙개조 제9조에는 계속해서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묘한 이유로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보다 돌아가신 예언자의 말씀을 더욱 쉽게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계시자는 요셉 스미스입니다. 그는 1823년부터 1843년까지 20년 간의 그 어려운 시기 동안 134편의 계시를 받아 인쇄하고 출판하였습니다.

그때 이래로 부름 받은 92명의 사도는 각자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요셉의 뒤를 이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는 그들 가운데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행사하고 사용하는 사도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인도를 받으며, 용기와 확신을 갖고 고결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분은 35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지지 받아 왔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선임 사도입니다. 그는 세상을 위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성임되고 성별되었으며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신권을 관리하는 관리 대제사입니다. 그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 모퉁이들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니고 행사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두 보좌의 도움과 열두 사도의 지지를 받으며 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회원들이 지상의 살아 계신 예언자인 교회 대관장을 지지하지 않고는 구세주와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



합당하게 성신의 인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원들과 부모와 지도자는 그들 자신의 책임에 대한 계시를 받을 권리는 갖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의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오래 전에 돌아가신 예언자를 맹목적으로 따름으로써 영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아주 미묘하게 살아 계신 예언자를 낮추려고 시도하면서 예언자를 지지하는 데 대해 애매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늘과 계속적인 교통을 경험해 왔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1918년에 받았던,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알려진 계시에는 신성하고 중요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은 신권과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978년의 발표는 분명히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계시 중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회에 새로운 지식과 방침이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의 계시를 통해 칠십인은 지역 회장단의 일원 및 교회 전체 행정의 역원으로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를 도와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하는]”(교리와 성약 107:34) 역할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신성한 가르침들도 많이 주어졌습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받은 계시들 중 많은 것이 교리적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실무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극적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담은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라는 계시를 받지 않았으며 노아는 롯이 소돔을 떠나야 한다는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받은 계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 자신을 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847년, 11월 1일, 323쪽)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불과 여섯 명의 회원만 있던 때와는 다른, 900만이 넘는 회원을 가진 교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는 다양한 나라와 지역과 성전과 기타 다른 많은 곳에서 선교 사업을 수행할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영화와 비

디오와 컴퓨터 및 위성 방송과 같은 현대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시의 과정은 교회에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있으며, 그분은 그의 종인 예언자들이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매일매일 필요로 할 때마다 이 권세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56쪽)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 미래의 계시

신앙개조 제9조 가운데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은 결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하늘 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현재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직되고 있습니다. 빛과 지식이 주어짐에 따라 예언이 성취되고, 더 많은 예지를 받음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거룩한 성전,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0년, 137쪽)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구세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이전에 대관장단에서 봉사하셨던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물몬경 및 교리와 성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전도 살아 계신 예언자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계시가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선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무한히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주는 모든 빛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만으로 인간의 자녀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권과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합니다.”(복음 진리: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의 말씀 및 기록집, 제2권, 제럴드 엘 뉴퀴스트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323)

이 약속된 계시는 언제 주어집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아모스의 다음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이 계속되는 계시는 사람들이나 사건으로 인한 외부의 압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사회적인 발전으로 인한 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예언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팔리피 프랫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계시해 주시고, 역원들을 선출하시고, 택하시며, 지명하십니다. 그분은 꾸짖고 징계하고 심지어 원하는 대로 제해 버릴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끊임없는 교통이 꼭 필요합니다.”(밀레니얼 스타, 1845년 3월호, 150쪽)

우리는 교회 대관장이 교회를 위한 계시자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인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그 분이 말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를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





현재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의 인도를 받으며 용기와 확신을 갖고 고결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가장 모퉁이들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니고 행사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는 교회의 이러한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대관장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상의 대법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권세를 위임하는 데 있어, 일부는 기록되어 있고 일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헌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기록된 부분은 고대와 현대의 믿을 수 있는 경전과 말일의 우리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계시의 영과 그들의 부름에 따르는 신성한 영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내린 해석과 결정을 공식화할 때, 계시를 통해 교회 행정 업무를 돕고 함께 일하도록 지명된 십

이사도 평의회와 함께 협의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선포하면 그것은 비록 개인적인 견해와 반대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율법과 질서의 왕국입니다.”(1938년 10월 대회 보고, 115~116쪽)

그러면 사람들은 예언자이며 선견자인 계시자가 약속된 대로 백성들을 결코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1972년 4월 대회 보고, 조셉 필딩 스미스, 99쪽 참조: 엔사인, 1972년 7월호, 88쪽 참조) 교리와 성약 107편에 나오는 다음의 중요한 원리 안에 한 가지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의 어느 정원회가 내린 결정은 다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나니...

“이들 정원회 또는 그 중 하나가 내리는 결의는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애와 인내로써 이루어져야 하나니,

“이는 만일 저들이 이것들을 풍성히 지니면 주에 관한 지식이 결코 궁핍하게 되지 아니하리라한 약속이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07:27, 30~31)

만장 일치의 요구는 편견과 개인적인 개성을 견제하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수의 의견이나 타협을 통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영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또한 그것은 계시된 방향에 대해 깊고 확고한 영향을 받기 전에, 최상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점으로부터 지켜 줍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한 말씀이 신성한 효력을 갖도록 결정하는 책임은 오로지 그 예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대관장단의 일원이었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만 말하는 사람들이 성신에 감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제이 르우벤 클라크: 종교, 교육 및 청소년에 대해 정선한 말씀, 데이비드 에이치 안이세 편집, 유타 주 프로보: 브리감 영 대학교 출판부, 1984년, 95~96쪽) 이것은 다음과 같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권고와 일치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자체로서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방해가 되는 무모한 확신을 갖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그들의 지도자의 손에 맡긴 채 맹목적인 자기 안전 상태에 안주하고 있을까 두려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는지 스스로 안다면 그들의 지도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두려웁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속삭임을 통해 그들의 지도자가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하십시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41년, 135쪽)

계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계시를 통해 교회는 미미한 시작에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는 살아있고 흐르는 물처럼 옵니다. 계시가 계속되는 한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클라크 부대관장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예언자나 다른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

다.(1948년 10월 대회 보고, 82쪽)

우리는 예언자, 선견자 및 계시자로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거나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임을 겸손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가장 높은 평의회에 계신 분들과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영감을 받아 결정할 때, 이 빛과 진리가 인간적인 사고력과 논리를 넘어선 것임을 압니다. 이 심오하고 거룩한 느낌은 하늘로부터 이슬처럼 내리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통해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분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들이 고귀하고 의롭고 주님께 헌신적인 종들임을 압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에 응답하고 그분이 임명하신 예언자에게 귀 기울이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필멸의 존재인 우리가 계시 없이는 주님의 목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의 예언자, 선견자 및 계시자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할 책임을 갖고 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
2. 회원들은 지상의 살아 계신 예언자인 교회 대관장을 지지하지 않고는 구세주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3. 우리의 안전은 교회 대관장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를 따르는 데 달려 있다.
4. 계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었다. 계시를 통해 교회는 미미한 시작에서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 계시가 계속되는 한, 교회는 계속 전진해 갈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림: 폴 어킨라이 콜포리; 어린이들이 너에게 모든 것을 부딪히고 금어지 몰라, 필자는 프리드리히스포르트, 앙 에베랑에 소장, 프리드리히스포르트 박물관의 에기를 용어 사용함.

# 福音時間

(복음 시간)

사진, 글: 로리 리브시

너무도 빠른 판에 박힌 일과였다. 그녀는 언제나 6시 이전에 일어나 6시 30분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학교 수업이 9시간 계속된다. 종이 울려 수업은 모두 끝났지만, 마치 그때부터 그녀의 하루는 막 시작된 듯 했다. 교실을 나선 그녀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날 배운 것들을 3시간 정도 더 복습하기 위해서다. 밤 8시가 되면 버스에 올라타 40분 정도 가면 집에 이른다.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세계 최신 정보들을 신문에서 읽고, 경전을 읽은 후에 잠자리에 든다. 엔젤이란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류관링에게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일과의 반복이었다.

예전에도 자유 시간이란 엔젤의 생활에선 누릴 수 없는 것이었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하다.

엔젤조차도 그러한 일정이 너무도 힘겨운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지난해에 엔젤은 타이페이 제일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국립 타이완 대학의 일학년인데, 이 대학은 중국 본토의 주변 섬나라인, 타이완의 최고 명문 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빡빡히 짜여진 고등 학교 학창 시절을 잘 견뎌 내고 졸업한 지금, 엔젤은 오히려 더 바빠졌는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때의 일과와 비교해 보건대, 대학에 와서 그러한 일정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대학교 과정에서 오히려 요구되는 것이 더 많았다. 하지만 엔젤은 바쁜 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꾸려나갈 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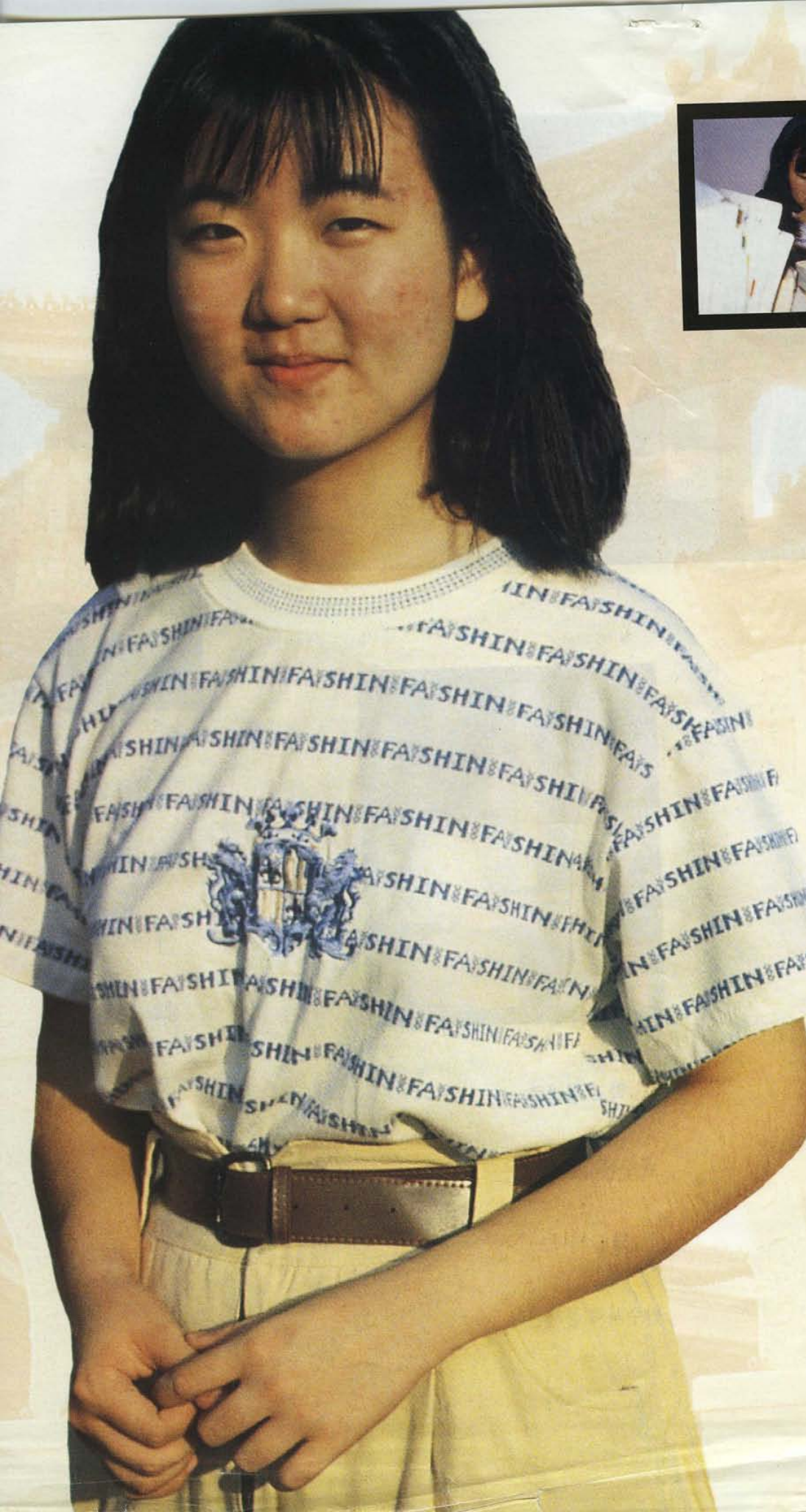
“경전을 읽고 기도할 때 제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하고 그녀가 말한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전 학교에서나 일상 생활에서 쉽게 좌절하고 낙담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찬식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 언제나 저는 보다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녀가 성찬식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타이페이 동 스테이크 산하 페이도우와드의 활동 회원으로 남기 위해 노력했던 이년간은 엔젤에게 매우 힘겨운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는 영어, 수학, 국어, 물리, 화학, 생물, 체육, 가정(요리 및 바느질)을 공부하는 데 보냈다.

엔젤에게는 경전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운 여가였다. 비록 친구들이 종교 때문에 학교 공부하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며 그녀를 이해해 주지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하고 말하는 엔젤은 총학생 수가 4000명이 넘는 타이페이 제일 여자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몇몇 학생들은 저와 종교에 대해 토론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제가 교회 때문에 학교 공부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여겨 제가 말일성도인 것을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한 반 친구 중 한 명은 엔젤이 주일날 교회로 초대했던 친구다. 엔젤은 자신의 친구가 교회에서 대체로 긍



타이완의

엔젤 류:

“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엔젤은 거의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복음의  
영향력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한다.



학교 일과로  
분주하지만 엔젤은  
와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한다.



“경전을 읽고  
기도할 때  
제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정적인 경험을 했었다고 전한다. 그 친구는 후에 엔젤에게 종교의 느낌이 좋았고 자신도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종교를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친구는 자신이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라고 엔젤이 덧붙였다.

엔젤의 아버지는 딸이 복음을 배우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온전히 확신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종종 엔젤에게 공부하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묻곤 했다. 엔젤의 어머니, 케서린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엔젤의 나이는 7살이었다. 엔젤의 아버지는 아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내와 함께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여하튼 그는 엔젤이 8살이 되었을 때, 침례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아버지는 재미있는 분이예요.” 엔젤이 덧붙여 말한다. “때때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이 다가오니까 교회에 가지 않으면 어떡니.’ 그런데 때로는 제가 교회에 늦을까봐 서둘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제 부모님이 제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셔요. 아버지께서 제가 계속 교육을 받아 성공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라고 엔젤은 덧붙인다. 엔젤은 또한 자신이 교회에서 활동적일 때,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 지역 대표이자 스테이크 부장인 켄트 리앙 형제는 “타이완에서 교회 회원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부름을 수행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것을 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회원이 아닌 일부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지 말고 쉬라는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의 경쟁은 너무 치열해 그들에게 학교가 모든 것인 양 비쳐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야 할 지 도서관에 가야 할 지 망설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들은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에 교회 일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타이완의 많은 아이들은 오로지 학교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엔젤은 놀라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그녀의 삶을 이끄는 복음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과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교회는 특히 고3시절 제게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많은 반친구들이 학교 때문에 쉽게 낙담하는 걸 많이 보았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성적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니다.”

현재 엔젤은 의사가 될 공부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하루의 짝 찬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녀는 여전히 경전 읽는 시간을 갖는다. 경전을 읽고 나면 10시 30분이 된다. 마침내 엔젤의 하루가 끝난다. 그녀는 학교 수업을 잘 해나가고 있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을 읽을 짬을 내고 있다는 것을 가슴 뿌듯이 느끼며 잠자리에 든다. 채 8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엔젤의 새로운 하루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녀는 틀림없이 아주 깊은 잠을 잘 것이다. □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와주신다는걸

알고 있어요.

나의 성적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니다.



# 세상적인 인기의 영합과 올바른 원리 준수

여러 면에서 세상의 방식은 복음의 종착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은 백성이므로, 주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그림: 그레고 케이 올슨, 리야이의 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세상의 방식을 좇게 되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위험은 포착하기 힘든 것도 있고 쉽게 눈에 띄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세상의 방식은 복음의 종착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약을 맺은 백성인 우리로서는 이 세상이 가이사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도권 싸움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좇는 것은

경멸의 손가락질을 한 사람 중에는 한때 식막대를 잡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리에서 이탈하여, 크고 넓은 건물 안에 있는 인기를 좋아하고 조롱하는 군중과 같은 노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고린도전서 7:31)라는 말씀처럼 부질 없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인기의 영합과 타락의 길로 가는 갈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신 대표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는 ‘몰몬주의’가 인기를 얻는 것

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좋은 그리스도의 종교를 믿느니 차라리 성도들과 함께 불행과 슬픔, 고난과 시련을 나누며 사는 편이 낫겠습니다.”(설교집, 10:297)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이 행동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단지 인사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의 인격을 낮추고 있음을 발견합니다.”(성도의 빛, 1976년 2월호, 77쪽)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때에라도 교회의 표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면, 최첨단의 유행을 좇으려는 유혹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덧없는 인기를 미련 없이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해 성을 내도록 책동할”(니파이이서 28: 20)지라도, 놀라서는 안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할 때에도 교회의 표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이사야 5:20 참조) “말일성도는 경멸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미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닙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12:272) 경멸의 손가락질이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없으므로, “그에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니파이일서 8:33) 경멸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때 쇠막대를 잡았던 사람도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하이가 시현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들 배도자들은 부끄러워하며, 무리에서 이탈하여, 크고 넓은 건물 안의, 인기를 좋아하고 조롱하는 군중과 같은 노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니파이일서 8:23, 33 참조)

거북하고 달갑지 않은 경고의 소리

를 내어 사람의 영혼을 지켜 주는 마음의 파숫군 즉, 양심이 인기에 의해 압도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비난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의로움이 널리 퍼져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특수한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대중의 사랑을 누렸던 예녹의 도시에 행복과 유례없는 의로움이 가득 차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종과 민족 가운데 선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유하여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경우, 최첨단의 유행을 따르려는 욕구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니코틴, 알콜, 또는 음화 등의 유혹이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악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89:4)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날의 사정을 감안할 때, 대관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이 교회 회원들에게 “원리보다 인기”를 중시하지 말도록 경고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술을 단호히 사양하듯 음란 영화의 관람을 쉽사리 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담배를 단호하게 거절하듯 음담 패설을 들을 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쉽사리 참을 수 있을까요?

회원들이 늘 숫적으로 열세인 처지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방식에

서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인기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의 어리석은 행동과 유행을 따라야 한다면, 덧없는 인기를 사기 위해 치르는 대가치고 너무 큰 대가가 아닐까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민중의 소요를 막기 위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인기있는 일”을 하여 폭도들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우스운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안되어 사마리아의 소요 때문에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 보건데, 사람들은 역사의 교훈을 너무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은 간결한 말로 세계 제2차 대전의 역사를 다룬 책의 마지막 권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는 하마터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뻔 했었던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세계 제2차 대전, 6권: 승리와 비극, 보스턴: 호턴 미플린 회사, 1953년, ix쪽)

사람에게 책임의 부담도 주지 않고 자유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방종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으며 개인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진정한 해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가하는 압박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합니다. 심지어도 정원회의 앨버트 보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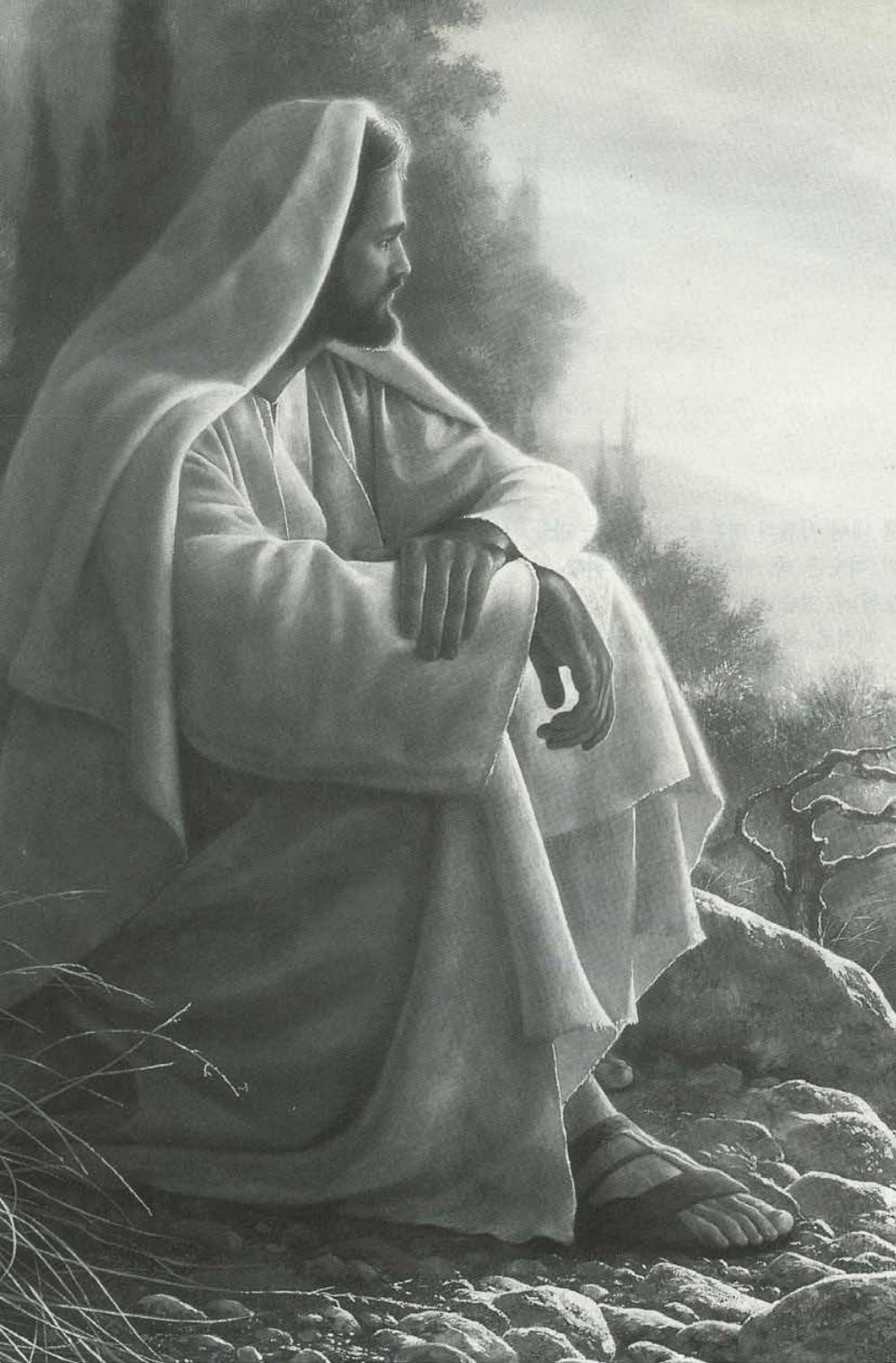


그림: 그레그 케이 올슨, 오 에루살렘

로는 “일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자신의 인기를 높이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인간의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과 혼합하려 하는지를 목도했으나, 인간의 이론은 그 가르침과 혼합되지 않을 것입니다.”(대화 보고, 1952년 4월, 66쪽)

우리는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원리를 올바르게 지키는 한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보다는 올바른 원리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 장로님은 교회 회원들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고 그 같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곧으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복음은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지키며 유행과 시류를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지지를 필요로 하는 총관리 역원에게 말씀을 하는 가운데, “아침은 파멸의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모세서 4:2, 교리와 성약 19:19 참조)

인기는 마약처럼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를 탐닉하다 보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의 마약을 수시로 투약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한 번 돌아간 머리는 쉽게 숙여지지 않습니다.

인기가 특히 위험스러운 까닭은 타인의 필요 사항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아에 집착하고, 주목 받는 일에 집착하며, 궁핍한 사람이 우리 곁을 “지나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몰몬서 8:39) 따라서, 인기가 두 가지 큰 계명을 지키는 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서글픈 사실입니다.(마태복음 22:36~40)

물론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인정을 받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생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 받는 일 그 자체를 위해 사랑 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합니다. 대외 이미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몸에 지니려고 노력하기 보다 본말을 전도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엘마서 5:14, 19 참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름과 상징의 대상 때문에 참다운 존경을 받고 있는 교회는 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도전에 의롭고 현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회원들도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회원이며 시민인 우리는 자신의 “자유 의사”로 “대업”에 “힘써 노력”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58:27) 그러나 어려운 점은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올바른 원리에 의거하여 “힘써 일하는” 데 있습니다.

갈수록 성도다워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려 깊은 사람과 관심있게 지켜 보는 사람으로부터 남다른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많은 혈족의 영들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품위있고, 명예로우며, 선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한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교리와 성약 123: 12)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지배력은 미미할지라도 세계 방방 곡곡에 널리 퍼질 것입니

다. 그렇지만, 그들은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할” 것입니다.(니파이일서 14:14) 세상의 인기가 주는 혜택은 어디로 보나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받게 되는 축복에 비해 보잘 것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인류의 종말 과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며 그 길이 넓어 인기가 있습니다.(마태복음 7:13 참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곧으며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가 군중과 함께 몰려 다니면서 주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기분을 거스리지 않으면서 주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제임즈 이 파우스트, 성도의 빛, 1995년 11월, 3쪽) 매리온 지 롬니 부대 관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단지 고문의 자격으로 그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는다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로마서 12:2 참조) 복음은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지키며 유행과 시류를 순순히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확고한 신념으로 따르는 사람은 늘 변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며 조화하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제 마음대로 생활하는” 시대입니다.(교리와 성약 1:16)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유념해야 합

니다. 그 까닭은 그러한 발상 자체가 괜히 우쭐해서 자신을 속여 치명적인 착각에 빠지게 하는 아주 위험 천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논평가는 이런 착각을 재치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리의 중요한 사안마다 늘 우리의 선입관에 동조하는 견해를 가진 사교적인 정치인이시라면,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유한하고 진보적인 존재이며 순수한 사랑 그 자체라면,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를 빠지고 영화를 보러 가도 용인하실 것이다. 오직 사랑만 하시고, 참기만 하시며,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겁날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 표준을 자축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무신론자인 나는 이런 하나님을 좋아한다.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그를 보게 되니 기분이 좋다.”(유진 디 제노비스, “천로 역정”, 뉴 리퍼블릭, 1992년 5월 11일, 38쪽)

원리를 벗어난 인기는 속된 취미에 부지런히 영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엔가 그 인기가 있었던 장소는 참석자들이 영광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장면에서 출연하고자 자리를 떠나 버림으로써, 갑자기 을씨년스럽게 텅비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은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저마다 고백하게 될 날입니다.(빌립보서 2:10~1 참조) □



# 암벽

사이의

# 구멍

1880년에

암벽 사이의 구멍

(홀인더락)을 통과했던

성도들의 신앙과

용기와 희생은

모든 말일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수행할 때

얻을 수 있는 힘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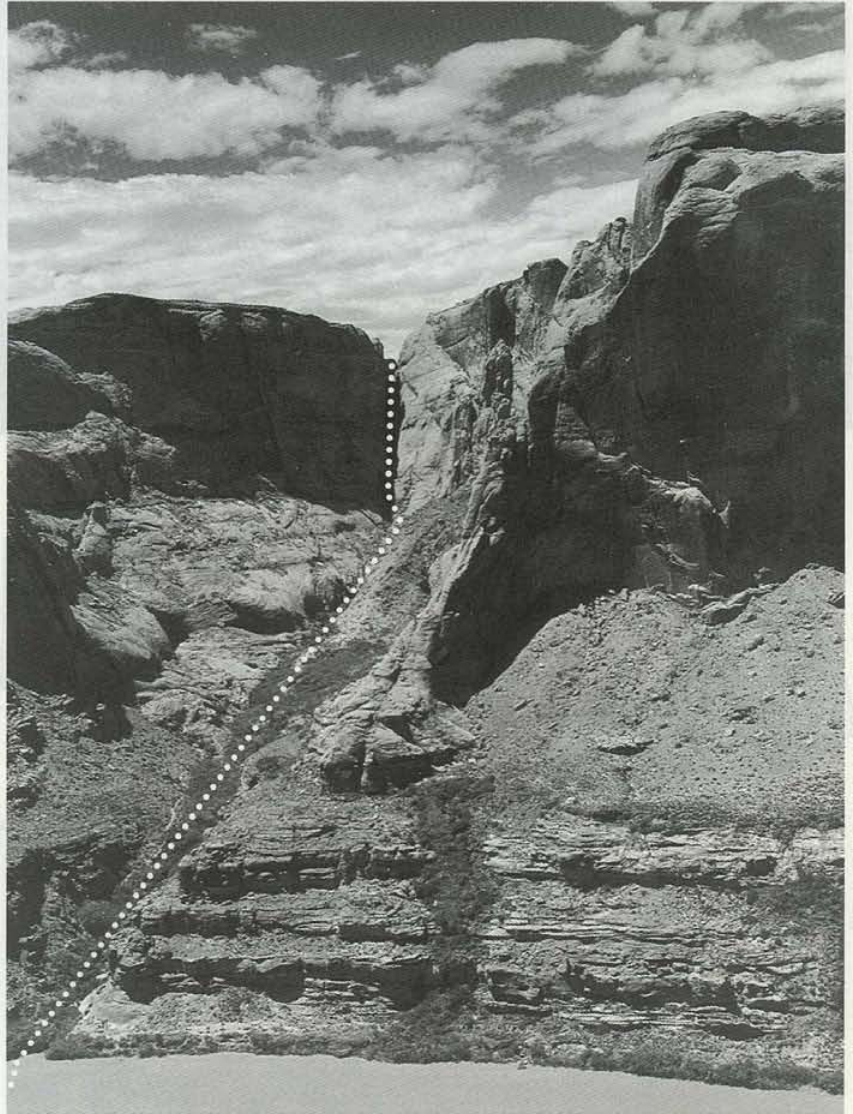
본보기가 되고 있다.

## 래린 포터 곤트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것은 1879년 12월 3일 밤에 일단의 개척자들이 품은 의문이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은 이 개척자 그룹에게 산 후안 선교부에 정착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그 곳은 현재의 유타 주 동남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힘든 여행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 개척자들은 고원에 위치한 사십마일 스프링에 천막을 쳤다. 그들의 지휘자였던 사일러스 에스 스미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았다. 약 80대의 마차로 이루어진 진영에는 250명 정도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가축떼도 대열에 포함되어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고 봄까지 그 야영지에 머물기에는 식량과 기타 다른 자원이 부족했다.

스미스 대장은 자신의 천막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이 지나온 서쪽은 눈이 엄청나게 내려서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물론이고 에스칼란테 산맥을 통과하는 길도 파묻혀 버렸다. 게다가 그들은 산 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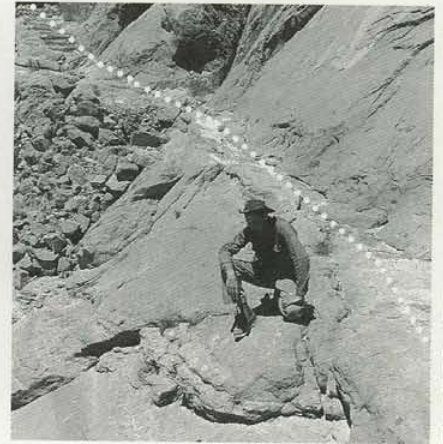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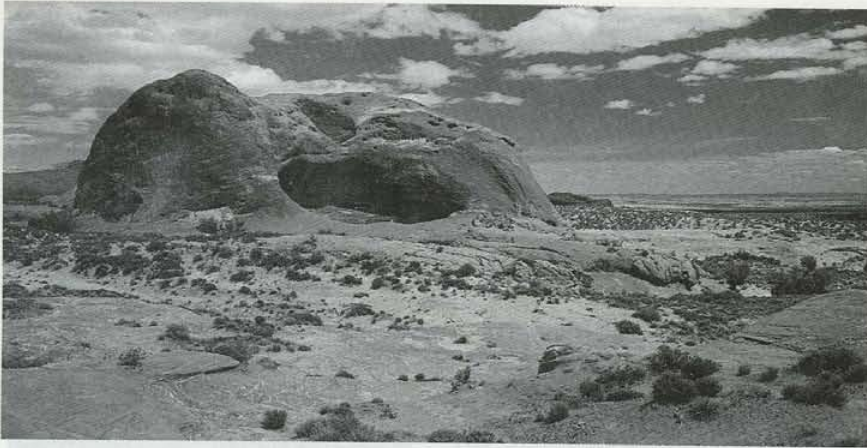
왼쪽: 포웰 호수에서 내려다 본 현재의 암벽 사이의 구멍(홀 인 더 락)의 모습으로서

1964년 콜로라도 강의 댐 공사 때 형성된 것임. 위쪽: 암벽 사이의 구멍을 통과하는 마차길 상부의 가파른 삼분지 일 부분. 포웰 호수에서 바라본 모습

선교부에 정착하라는 테일러 대관장의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원래 서부 전역에 정착지를 세우려던 브리감 영 대관장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들 중 누가 그러한 부름을 거절하겠는가?

그들이 나아가야 할 동쪽으로는 길도 전혀 없고 물도 거의 없는 험한 지역이 300킬로미터 이상 펼쳐져 있었다. 앞으로 나가자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콜로라도 강 위쪽의 고원 지대에 있는 글렌 캐년 서쪽 벽의 갈라진 틈인 홀 인 더 락이라는 암벽 사이의 구멍을 통해 가야만 한다. 그것은 위험한 지름길이었으나 그 외의 유일한 다른 길은 6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였다. 탐험대의 보고는 비관적이었다. 암벽 사이의 구멍이라는 뜻을 지닌 홀 인 더 락을 통해 가는 것은 마차와 가축을 데리고 3분의



미국 개척국의 여가를 받아 개척함.



1이 45도의 급경사인 길을 610미터나 강하해 가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많은 토의를 거친 후, 한 사람이 “스미스 대장과 주님”께 그 결정을 맡기자고 했다! 그들은 만장 일치로 찬성함으로써 주님이 그들의 지도자에게 영감을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다음날 아침, 스미스 대장은 모임을 갖고 앞으로 나가자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그룹의 일원이었던 쿠멘 존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기적적인 결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기가 켜놓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모두 환호

와 갈채를 보였다.” 그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진을 지지하는 간증을 전했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해서 이내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이 차가운 12월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흙과 바위를  
날려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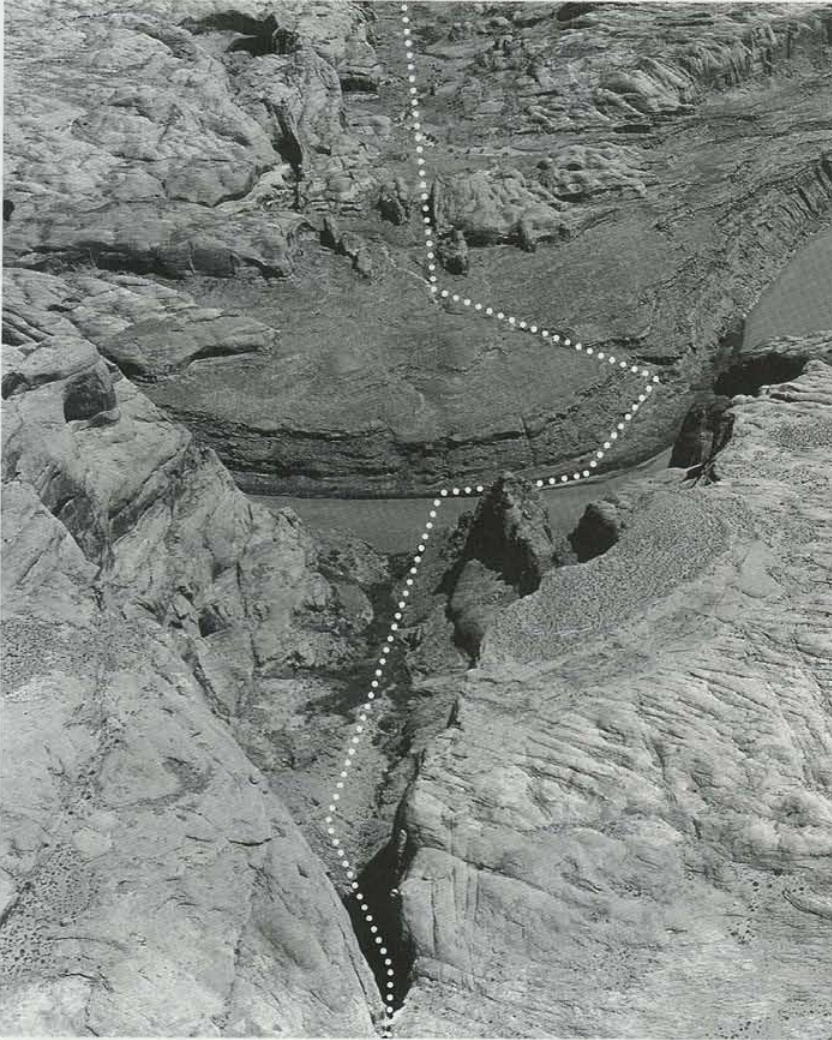
그들은 예언자로부터 받은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가 되어 50마일 스프링을 향해 사막으로 나아갔다. 길이 전혀 나있지 않았기 때문

에 그 개척자들은 누군가가 “이제까지 본 것 중 마차가 지나가기 가장 험한 지역”이라고 말한 곳을 지나는 길을 만들었다. 대부분이 바위이고 식물이 거의 없는 그 땅은 협곡과 100미터가 넘는 수직의 깊은 구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0마일 스프링에서 스미스 대장은 일을 분담하기 위해 무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암벽 사이의 갈라진 틈에서 일하고, 또 다른 그룹은 암벽 사이의 갈라진 틈에서 강까지 이르는 12 킬로미터의 길을 만들고, 나머지 한 그룹은 나룻배를 만들기로 했다. 그 다음 여섯 주 동안 세 그룹은 모두 일제히 일하였다. 좁게 갈라진 틈을 넓히는 일을 했던 그룹의 코넬리우스 아이 데커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이제까지 그들보다 더 큰 의욕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청년들이었다... 우리는 흙과 바위를 날려 버렸다.” 대장장 이들은 사람들이 단단한 바위를 자를 때 그 도구를 계속 잘 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멍”에 두 개의 대장간 노를 만들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14미터 높이의 절벽에서 반으로 자른 통안에 들어간 채 밧줄에 매달려 밑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공중에 매달려서 절벽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폭약을 채워 넣었다. 맑거나 눈이 오거나 작업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사실상 지나갈 수





“난 결코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

1880년 1월 26일, 모든 것이 완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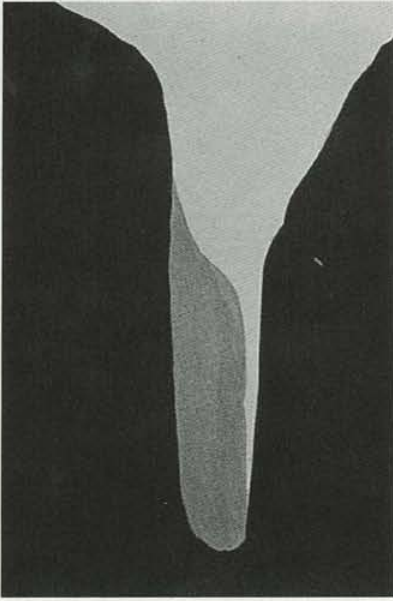
엘리자베스 엠 데커는 첫번째로 “구멍”으로 내려간 마차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콜로라도 강에 이르기 위해 암벽 사이의 구멍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수직으로 강하하는 것이었다. 사방이 약 155미터 높이의 절벽이었고 길은 마차 한 대가 간신히 내려갈 수 있는 넓이었다. 그것은 내게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를 안겨 주었다. 내가 본 첫번째 마차는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갔으며... [함께 내려가는 마차들이 굴러가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뒷바퀴는 쇠사슬로 서로 연결하였고] 마차들은 굵은 밧줄로 매어져 있었다. 열 명 가량의 남자들이 마차를 잡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든 것을 부숴 버릴 것처럼 내려갔다. 난 결코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날 암벽 사이의 구멍을 통해 내려간 마지막 26대의 마차 중 하나는 조셉 스탠포드 스미스 대장의 마차였다. 스탠포드로 알려진 스미스 형제는 그 날 하루 종일 아내와 세 아이들이 눈 속에서 누빈 이불을 두르고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 벨은 사람들이 도와주려 울지 분명히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맨 왼쪽: 개척자들은 홀인더 락으로 가는 도중에 댄스 홀 락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열린 동굴에서 바이얼린 음악에 맞춰 춤을 주었다. 왼쪽: 수직 절벽을 건너기 위해서 개척자들은 절벽의 암벽 표면에 길을 만들었다. 그들이 만든 선반은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위쪽: 포웰 호수가 만들어지기 전에 찍은 이 얽은 사진에는 홀인더 락의 갈라진 틈(앞쪽, 중앙)과 개척자들이 콜로라도 강을 건너 동쪽으로 여행할 때, 한 개척자가 “이제까지 본 중에서 가장 험한 지역”이라고 했던 곳이 보인다.

없는 땅에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의 상부의 가파른 삼분지 일 부분은 엄청난 도전을 요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15미터의 암벽 표면에 어떻게 길을 만들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먼저 암벽에 튀어나와 있는 바위들을 폭파시키고 다음으로는 바깥쪽으로 턱진 부분들을 넓혔다. 이것은 그 턱진 부분에 평행으로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 널판을 밀어 넣어서 해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위와 통나무와 자갈을 겹쳐 쌓아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넓이로 만들었다. 세 번째 그룹은 콜로라도 강 위로 한 번에 두 대의 마차를 옮길 수 있을 만한 넓이의 나룻배를 만들었다. 또한 이 그룹의 일부는 동쪽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홀인 더 락의 전과 후. 밝은 부분은 개척자들이 제거한 바위 부분이다.

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마차를 몰고 가기로 결심했다. 벨은 세살밖에 아들을 이불로 두르고 앉힌 다음 그 다리 사이에 아기를 두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아이인 아다는 동생들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

스탠포드가 다리를 진흙받이에 바짝 붙이고 앞쪽의 말을 부드럽게 모는 동안, 벨은 마차 뒤에서 마차가 천천히 내려가도록 다른 말과 함께 그것을 당기고 있었다. 마차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뒤에서 버티고 있던 말이 끌려 내려갔다. 벨은 여러 번 말이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바위에 발을 걸고 그것을 잡는 바람에 말과 함께 가파른 비탈을 질질 끌려 내려갔다. 마차가 멈출 때 들쭉날쭉한 바위가 벨의 다리를 발똥꿈치부터 엉덩이까지 찢어 놓았다. 스탠포드는 벨이 무사한지 보기 위해 그녀에게 달려갔다. 벨은 개척자다운 강인함으로 남편에게 자기는 내려오면서 줄곧 “껍충껍충” 뛰어왔다고 말했다. 스탠포드는 벨을 마차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의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

런 후 그는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말 곁을 지나치면서 그 말이 살기는 했으나 어리벙벙해 있는 모습을 보고 스탠포드는 모자를 벗고 흔들며 아내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해냈던 것이다!

“힘차게 일했으며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 일행이 나룻배로 콜로라도 강을 건넌 후에도 앞에는 여전히 바위투성이의 울퉁불퉁한 길이 240킬로미터 이상 남아 있었다. 엘리자베스 엠 데커는 그녀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땅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본 중 가장 험한 지역입니다. 그 곳에는 바위와 구멍과 언덕과 구렁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곳의 산들은 사과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바위입니다.” 그 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험했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나는 시간도 예정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다. 말하자면, 그토록 고생을 해서 소위 지름길이란 것을 만드느라 여섯 주가 아니라 여섯 달이 걸린 것이었다. 그 동안에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식료품은 노새들을 이용하여 가져 와야 했다. 1880년 4월 6일, 지칠대로 지친 대원들은 조그만 강 가까이에 있는 훌륭한 농토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곳을 블링 시티라고 이름 붙였다.

힘든 여행이었지만, 그 개척자들은 예언자에게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에 끝까지 충실했으며 훌륭한 정신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 냈다. 그 일행이었던 한 대원은 이렇게 회상했다. “캠프가 아주 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소 성가시게 굴고 얼마간 사고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여행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힘차게 일했으며 조화를 이루었다.”

이 개척자들이 만든 길은 약 1년 동안 그 지역 안팎의 주요한 고속도로 역할을 했다. 서쪽으로 가기 위해 암벽 사이의 구멍의 그 가파른 회랑을 지나가는 모든 마차는 여섯 마리의 말이 필요했다.

그 길은 1882년부터 쓰지 않게 되었지만 그 개척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 즉 테져렛 주로 추천된 지역의 외지에 정착지를 건설하는 일을 해냈다. 오늘날 그 지역은 다소 고립되어 있기는 하나 예언자가 주신 부름에 순종하여 단단한 바위에 길을 만든 그 충실하고 강인한 개척자들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 □

주

1. 데이비드 이 밀러, *암벽 사이의 구멍*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대학교 출판부, 1966년), 65쪽. 이 기사의 많은 부분은 밀러의 책에서 인용했음.

#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됨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16)

**침**례식에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서약을 한다.(모사이야서 18:9)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을 보이는 행위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우리의 간증을 듣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간증을 나눠 주는 우리 자신도 축복 받는다.

##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구세주를 증거하는 것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심을 모범과 교훈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선언하셨다.(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89쪽)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입을 열라. 그리하면 가득 채워지리니...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33:8~9) “너희는 미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끊임 없이 너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쌓아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그 시각에... 말해야 할 말을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84:85; 교리와 성약 100:5~6 참조)

때때로 우리는 간증을 나누기를 두려워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대관



그림: 주디트 메이

장단 제 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간증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냥 침묵할 것인가를 놓고 양단간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때에 관해 말씀하셨다. 비행기 안에서 비번 근무중인 한 여승무원이 그의 옆에 앉아 '기이한 업적'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와 대화한 후 몬슨 부대관장은 그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마음속으로 품었습니다. 그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베드로전서 3:15) 라고 하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그녀에게 저의 간증을 전해 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49쪽)

이 여자는 후에 교회 회원이 되었고, 몬슨 부대관장께서 그의 간증을 전해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였다.

기쁨은 복음을 알게 된 사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 준 사람에게도 찾

아온다. 몬슨 부대관장의 경우처럼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진리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 개종자로부터 감사의 느낌을 받은 말일성도들은 많다.

## 간증에는 힘이 있음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에는 뛰어난 말솜씨와 논리 정연한 언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신앙과 겸손의 마음으로 전하는 단순한 말에는 위대한 영적인 힘이 담겨져 있다. 앤 오스본 포울만 자매의 개종 이야기에 이런 사실이 있다. 그녀가 선교사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중, 한 젊은 장로가 복음에 대해 아주 힘찬 간증을 했다. 그 장로는 선교사 생활 1주일 밖에 안된,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다. 포울만 자매는 그에게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응수했다. 그 뒤 일어난 일을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그 젊은 장로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스본 자매님, 복음이 참됨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요!’ 이렇게 진지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간증에 누가 어떻게 논쟁할 수 있겠어요? 난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시므온의 해결책,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95년, 59쪽)

· 간증을 함으로써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 구세주를 증거할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

# 가정에서의 모든 일이 잘 안될 때

잔 편보로우

촬영: 존 루크

예년과 별다른 바 없는 아버지의 날이었다. 남편은 새 베타이로 탄성을 자아냈고, 우리의 어린 두 딸 아이들은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며 아빠를 포옹했다. 성찬식의 연사들은 사랑이 많으며 의로운 아버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아빠가 귀가할 때 난 참 기뻐요”의 연주가 끝날 무렵, 초등협회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 여느 때처럼 요란한 키스를 퍼부었다. 우리는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며 다음 모임을 향해 예배당을 나서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제니를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눈물로 젖어 있었다. 재능 많고 쾌활하고 신앙이 깊은 제니—그녀는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딸들이 그렇게 자라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월계 반원이었다. 그녀는 왜 울고 있었을까? 제니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이리라. 또한, 가장 원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상적인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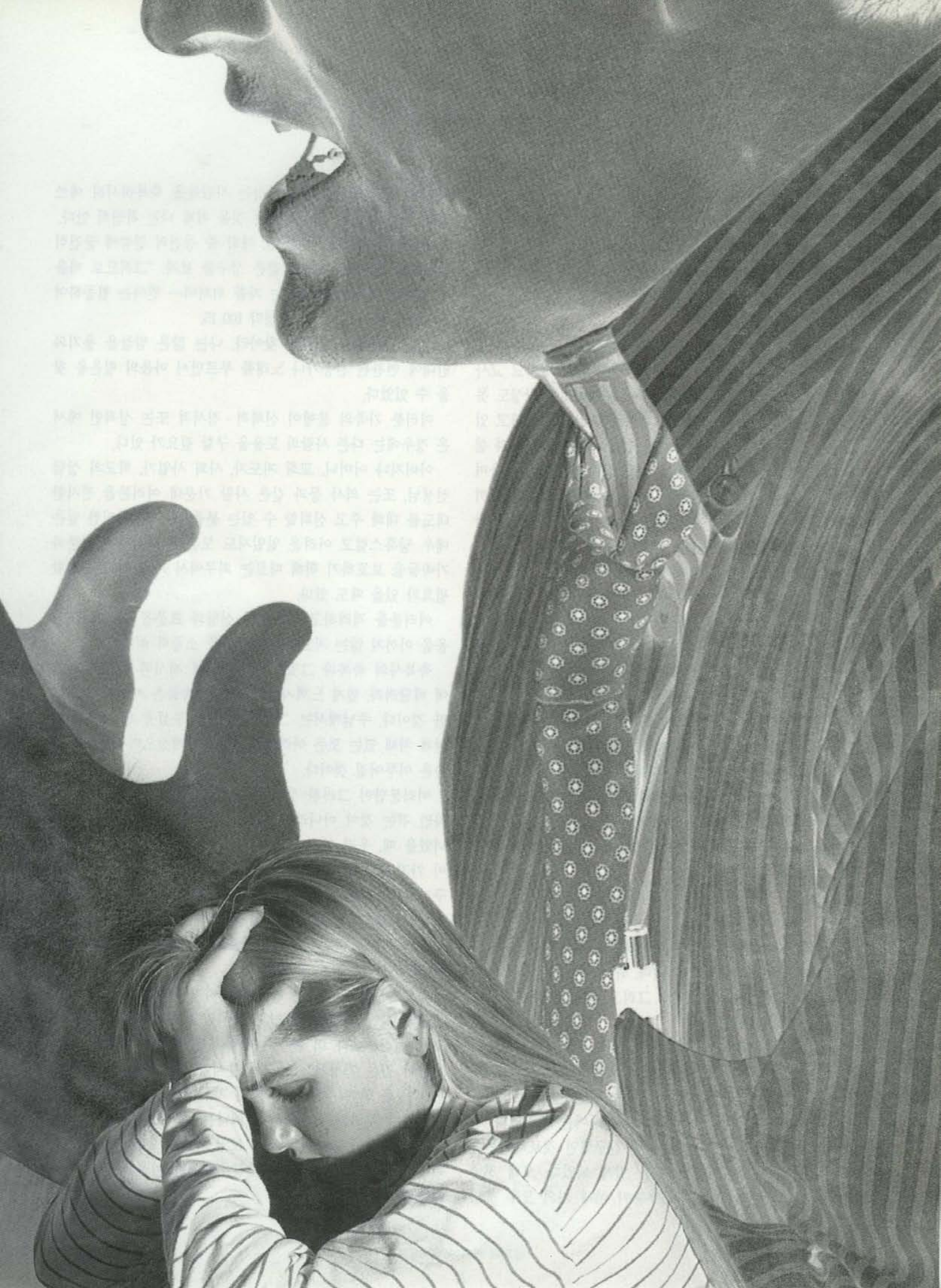
제니의 눈물을 접하자 여러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찬송가, 174장)의 일절을 끝까지 부르려고 애쓰던 것이 기억났다. 매년 우리는 “세월은 행복하고 풍성뿐일세”라는 소절에 이르러 평정을 잃고 목이 잠겼다. 어릴 적 내 집에선 시간이 순탄하게 흐

른 적이 거의 없었다. 언제나 여기저기서 터지는 감정 폭발로 우리 집은 빼격대고 있었다. 그러한 감정 폭발이 없는 동안 오빠와 언니들과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고 우리의 신경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아주 조심한다면 다음 폭발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짧은 햇살 뒤에 언제나 우리를 삼킬 듯 두려웠던 무서운 격노의 폭풍우가 뒤따랐다.

때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결코 되지 못하리라는, 생각지도 못할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해가 거듭되면서 그 두려웠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내게 가장 명료하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들어온 얼마 후에 부모님에게 인봉되었던 그 기억이 궁극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난 이십대였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두려움에 찬 아이같이 느꼈었다. 지난 날 가족과 함께 했던 모든 행복한 삶의 부분들이 갑자기 모두 삭제되고 무효화되고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다. 이 현재라는 시간에 나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영원한 세상에서는? 나는 영원한 고아가 된 듯이 느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든 이해와 마음의 평화로 내



영혼의 상처는 일부 아물어 가고 있다. 이제 가장 큰 나의 소망은 소용돌이 치는 불행한 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은 평화를 전해 주는 것이다.

### “그것이 내 잘못인가?”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가르침을 전할 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그 말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리라. 나는 내 자신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적어 거울에 붙여 놓았다. 나는 두려움과 실망과 자기 연민의 감정에 복받쳐 많은 밤들을 방안에서 울며 보냈었다. 나는 틀림없이 뭔가를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비록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 낼 수는 없었지만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틀림없이 내게 있음을 알았다.

물론 나는 십대로서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야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그러한 감정들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내 슬픔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선택은 나로서는 전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고 어린 이로서 가족의 전반적인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며 부모가 내린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서로 다투거나 계명을 어기는 부모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문제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그릇된 죄의식으로 여러분이 처한 입장을 더욱 나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 매달림

이혼이나 다른 가족이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 길은 때로는 단순히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원히 그리고 깊이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에 매달려야 한다.

가족에 대한 내 기도가 자주 응답되지 않고 지나는 듯이 보였다. 때로는 기도를 할수록 더욱 악화되어 가는 듯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시지만, 강제로 변화를 가져 오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까지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오래 전에 드렸던 그 열렬한 기도들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모두 응답

되었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려 애쓰심을 결코 중단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나는 확연히 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으로 채워 줄 경전의 말씀에 굳건히 매달려라. 일례로 다음과 같은 성구를 보자. “그러므로 마음을 놓아라. 의롭게 생활하는 자를 위하여… 만사는 협동하여 유익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00:15).

영을 양육하는 음악을 찾아라. 나는 많은 밤들을 용기와 인내에 연관된 찬송가나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가족의 불행이 신체적·정서적 또는 성적인 에서 온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나 어머니, 교회 지도자, 사회 사업가, 학교의 상담 선생님, 또는 의사 등과 같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진지한 태도를 대해 주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찾아라. 이러한 일은 매우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외부에서 가족 일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신앙과 표준을 지키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는 지도자나 친구들을 소중히 여긴다.

축복사의 축복과 그것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미래의 비전에 매달려라. 멀게 느껴지겠지만 그 약속들은 사실이며 영원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으며 또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만이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기억하라. 내가 십대의 소녀였을 때,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우리 가족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감추고 싶은 가족의 그러한 모습을 그녀가 눈치챌까봐 걱정했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그 친구의 가족간에도 우리 가족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가장 확신에 차 있고 재치있고 인기있는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있을 수 있다. 아주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도 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비록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심각해 보일 때라도, 그러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마음을 이러한 이해를 통해 갖도록 한다.

## “내가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곤경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겠는가? 1831년 8월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열 명의 장로들과 함께 미주리 주 잭슨 군에서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돌아오고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당혹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지 말라. 여러분만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친구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그들이 위로와 이해의 큰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카누를 타고 위태롭게 미주리 강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지치고 오한에 떨며 향수에 젖었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의 기운을 북돋우셨다.

“어린 아이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내가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1:36)

이같이 우리도 주님께서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다. 십대였을 때, 난 때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몰랐다. 그러나 내가 가장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제는 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더 공정하며 자비롭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진실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영원한 고아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미래의 시간을 위해 살 수도 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들보다 더 온전한 이해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전에 갈 그 날을 위해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가정 즉, 사랑과 평온과 주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노력할 수 있는 가정을 갖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다. 우리들 자신은 비록 부모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갖게 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또한 살 수 있다.

나에게 그러한 날이 마침내 왔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날이 올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





##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지

제프리 에스 맥클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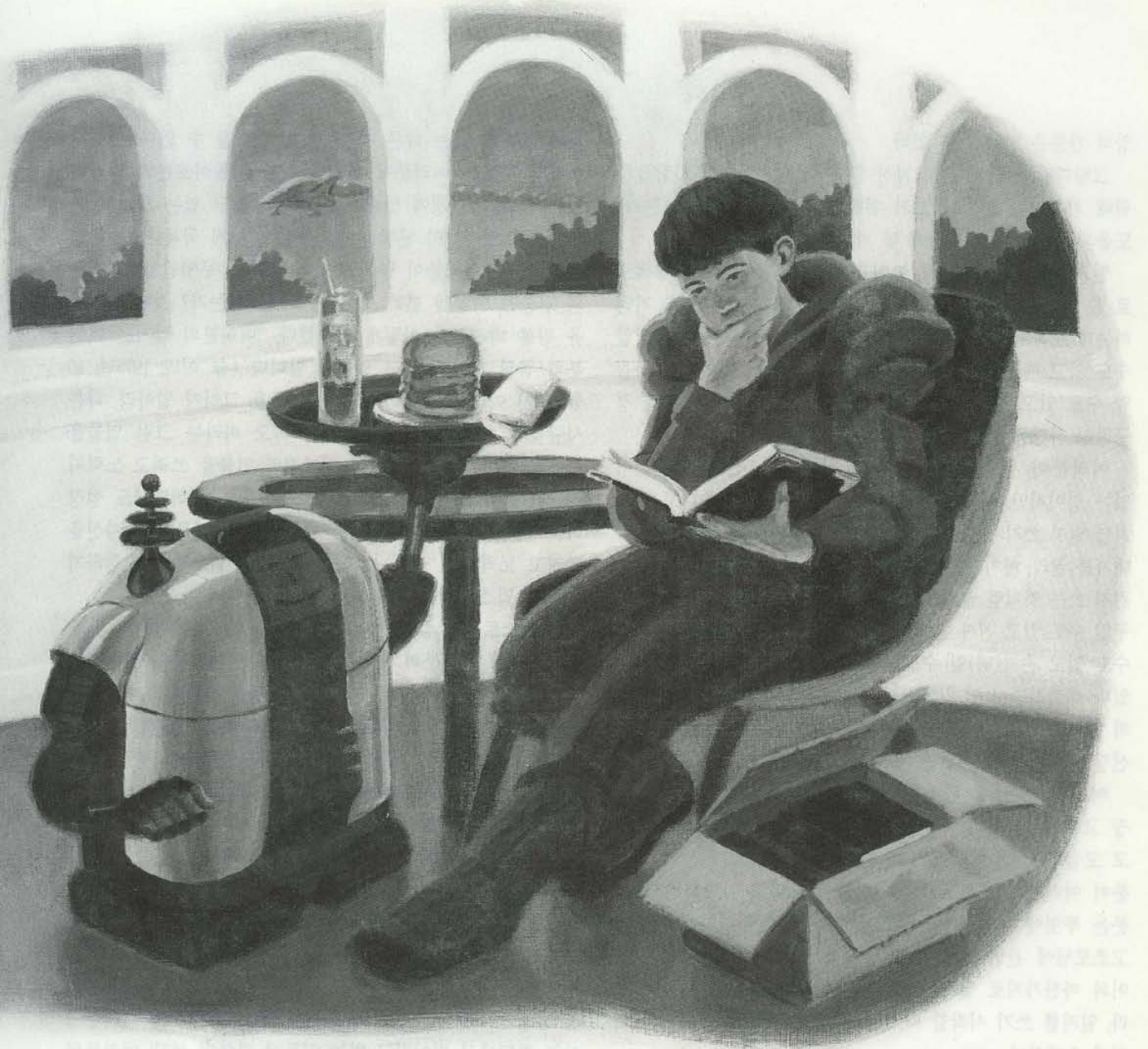
그림: 매튜 에이치 맥스웰

**만**약 물문경 저자들이 그들의 체험 기사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썼다면, 그 물문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까? 그 책은 얼마서 46~62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음모와 소묘로 가득한 사건 내용을 담고 있을까? 또는 니파이에서 4장에서와 같은 영적으로 심오한 의미를 담은 논문 형식의 기사를 포함하고 있을까? 또

는 움나에서 1장 9절에 나오는 케미시의 기록처럼 간단한 몇 마디 문장으로 끝나는 기사가 있을까? 또는 그런 물문경이 존재하거나 할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문경 시대와 같은 형식으로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체험 기사 즉, 우리의 일지는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읽혀질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자녀들이 읽을 것이다. 또는 계보 사업을 하는 우리의 손자의 손자들이 읽을 지도 모른다. 또는 복천년 이전의 교회 회원들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어떤 복음 학자가 읽을 지도 모른다. 또는 우리가 사는 고장의 20세기 후반 생활을 탐구하는 어떤 고고학자가 읽을 지도 모른다. 이들 중 누가 읽든, 그들은 우리의 일지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의 일지에서 발견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일지는 단지 미래 사람들 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 자신에게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일지는 우리의 가장 친한 벗 중 하나일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일지와 이야기할 수 있

다. 즉, 우리는 기쁨, 희망, 성공 사례 등을 일지에 담아 놓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좌절시킨 일, 골치 아픈 문제, 실패 사례 등도 우리의 일지에 담아 놓을 수 있다. 골치 아픈 문제에 관하여 일지에 기록하는 것은 다음에 그 문제를 생각할 때 해결책이 떠오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일지에 글로 담아 놓을 경우,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분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할 때, 혼란한 가운데서 명료한 생각을 해야 할 때,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다 잘 이해 해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일지를 읽음으로써 잊었던 축복들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 다년간에 걸쳐 기록한 우리의 성스런 개인 일지를 우리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읽는 사이 우리의 신

양과 간증은 강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가치있는 일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움되는 생각들을 여기에 몇 가지 적어 본다.

**일지 쓸 시간을 정해 놓아라.** 여러분의 일지를 정기적으로 쓸 시간을 정한다. 이같이 하는 것은 일지 쓰는 일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지 쓰는 시간은 매일 저녁일 수도 있고 매주 일요일 하루 뿐일 수도 있다. 또는 매일 아침일 수도 있고 점심 시간일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 도움될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라.

**여러분이 글을 쓰는 가상의 상대자를 선정하라.** 흔히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일지 쓰기가 한층 더 수월해진다. 여러분이 글을 쓰는 상대자를 골라, 마치 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편지 쓰는 것처럼 일지를 쓰라. 그 사람은 여러분의 가상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진짜 친구일 수도 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손자(녀)일 수도 있다. 또는 미래의 역사가일 수도 있다. 대화하면서 일지를 쓰라. 대화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격의 없는 대화라야 한다. 누구에게나 감명을 주는 글을 쓰려고 신경 쓰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답게 글을 쓰라.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쓰라.** 일지를 쓰는데 있어서 가장 고된 일의 하나는 무엇에 관하여 쓸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고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찰할 점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조모님의 일지를 읽는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무엇에 관한 것을 읽고 싶어하겠는가? 아마 여러분의 고조모님에 관한 것을 읽고 싶어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와 마찬가지로 일지를 쓸 때는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쓰라. 일지를 쓰기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몇가지 아이디어를 여기에 소개한다.

1. **인물과 장소를 기술하라.** 여러분의 일지를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활에 관해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할 것이다. 사람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어머니, 선생님, 그 밖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관심을 끄는 점을 기술하라. 그들의 신체적인 특징과 개성을 묘사하라.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관해 기술하라. 여러분이 사는 장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집회소, 휴가(방학)때 여러분이 가는 장소 등을 기술하라. 여러분의 생활에 의미있는 것들은 전부 기술하라.

2. **여러분의 느낌에 대하여 쓰라.**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며, 왜 그런 느낌을 갖는지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 기술하라.

3.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글을 쓰라.** 이는 여러

분의 일지를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데 특별히 도움이 된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무엇인가? 이 난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 또는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이 받은 최상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게 변화 또는 증대되고 있는가? 스펜서 더블 유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의 일지는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뉴 이라, 1975년, 10월, 5쪽)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짓 상을 그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인물을 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인물을 쓰려고 노력하라. 즉, 삶의 도전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그러면서도 성장하고 배우고 발전(향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쓰려고 노력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비밀스런 문제에 관하여는 기록하지 말아라.

4. **리스트를 작성하라.**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의 친구, 학교에서의 여러분의 수업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품, 노래, 영화, 책, 성구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라. 그런 다음 그 리스트 안에 포함된 각 사항에 관하여 기술하라.

5. **여러분의 일지 안에 편지를 쓰라.** 여러분이 생전에 만날 미래의 사람 (예: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될 사람) 이나 또는 과거의 어떤 사람 (예: 조상) 앞으로 편지를 쓰라. 이 밖에 다른 사람들 (가족, 친구 등)에게 편지 쓰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6. **역사가의 입장에서 쓰라.** 여러분의 일지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타국인이거나 또는 다른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역사에 관해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현 세계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쓰라. 여러분의 일지를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7. **선택된 유품들을 일지 안에 포함시켜라.**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수 그린 그림이나 여러분 자신이 쓴 시 또는 이야기 등을 여러분의 일지 안에 포함시킨다. 여러분이 참가한 연극 프로, 여러분의 사진, 또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진도 여러분의 일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지가 스크랩북이나 사진 앨범으로 전용되지 않게 하라. 이런 것들은 일지와는 별도로 보존되어야 한다. □

(이 기사에 실린 몇 가지 생각들은 테머러 리험 베일리와 제넷 고트 스미스에게서 도움을 받았음.)

# 제가 간구함에, 주님이 응답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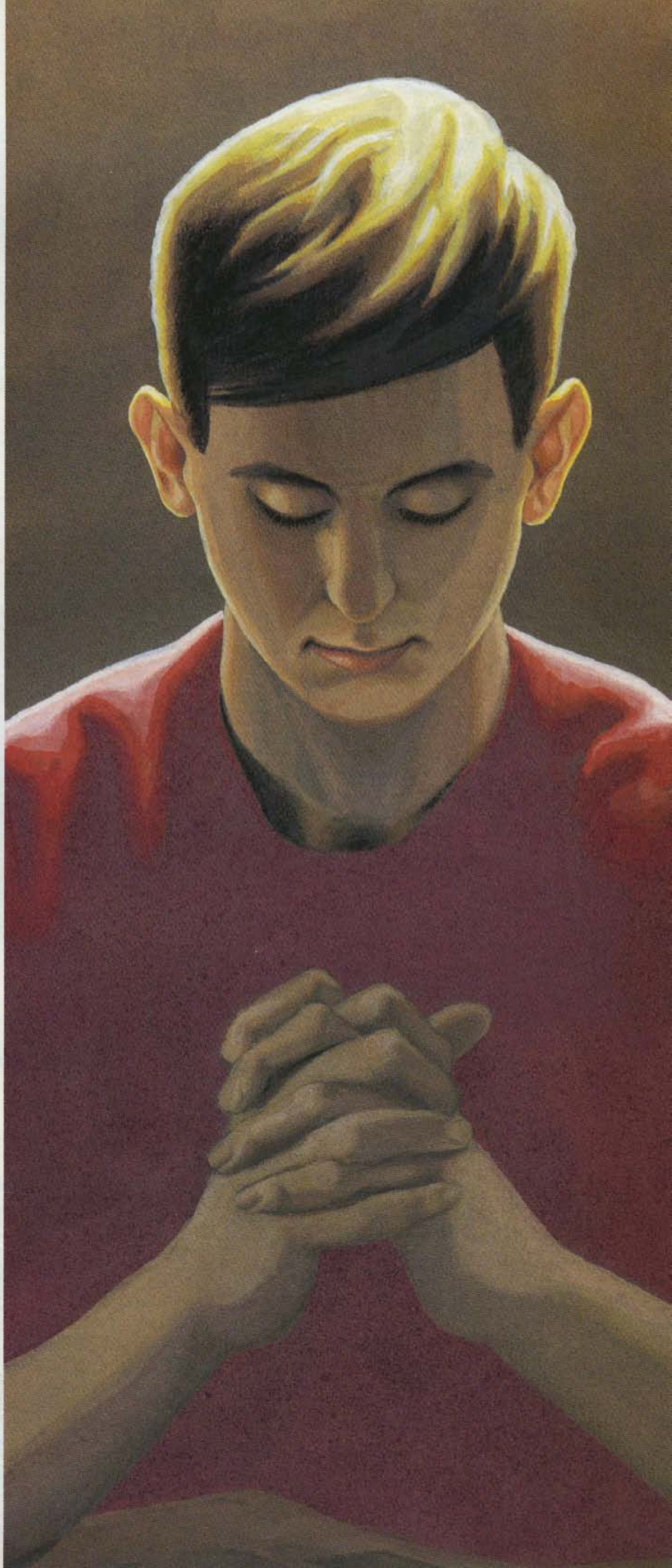
에릭 한센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세 미나리에서 물문경을 배웠어요. 모로나에서 10장 3~5절을 함께 읽은 후, 세미나리 교사님은 우리에게 배우고 있던 것들에 관해 기도해 볼 것을 권고 하셨어요. 물문경에 관해 배우는 것이 정말로 즐거웠기 때문에, 그분의 제의를 받아 들였어요.

그날 밤, 다시 한번 모로나이의 약속을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책이 정말 참된 책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간구드렸어요. 물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좋아했지만 물문경이 참된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거든요.

먼저 주님의 영을 느끼고자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하던 도중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문경이 진실로 참된 것인지 여쭙어 보았어요. 저는 별안간 강한 사랑의 느낌이 제 침실에 감도는 것을 느꼈어요. 따스함이 온 몸에 스며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저는 무척 놀랐어요. 누군가가 양팔로 저를 사랑스럽게 꼭 껴안는 것처럼 느꼈어요.

저는 그후에 뉴 멕시코 엘부커크 선교 지역의 나바조우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 선교 사업을 했어요. 그날 밤 제가 받은 응답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선교 사업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본 것들이 참됨을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



# 칠레

## 비옥한 포도원

칠레는 38명 중 1명이 교회 회원이며,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고 있다.

마이클 알 모리스  
사진 촬영: 작가



**낮** 선 땅의 이방인들이었던 칠레의 초기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이제 전폭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랫 장로와 그의 아내 페베, 그리고 루퍼스 시 알렌 장로는 남북 전쟁과 아울러, 프랫 장로가 말하는 "궁핍한 재정 및 불완전한 언어" 때문에<sup>2</sup> 이들 나라에 복음의 열쇠를 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sup>3</sup> 발파라이소에 도착한 후, 5개월째 되는 1851년 11월 8일, 세 명의 선교사는 단 한 명도 침례주지 못한 채 그 곳을 떠났다. 그러나 이미 그 기간 동안 프랫 장로는 칠레의 아름다움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다. 프랫 장로는 자신의 일지에서 아름다운 아콩카과 강 계곡의 과

수원과 농장 및 포도원들이 "에텐 동산처럼 비옥하다"고 기술했다.<sup>4</sup>

거의 15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이루고 있는 성과에도 똑같은 말을 적용할 수 있다. 아루카니안 인디언들의 말로 "땅이 끝나는 곳"<sup>5</sup>을 의미하는 칠레는 수십 만 명의 칠레인들에게 신앙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칠레에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겨우 40년 밖에 되지 않

칠레의 비옥한 아콩카과 강 계곡에 위치한 가족 농장에서 퀴로타 워드 회원인 루나 살가도와 그녀의 자녀인 에밀리오 호세, 로미나 안드레아가 양파를 거두어 들고 있다.



지만 교회는 거의 100개의 스테이크와 420,000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천사백만 명이 못되는 총 인구수를 고려할 때 획기적인 일이다.

### 급속한 성장

칠레는 평균 160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너비에, 페루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쪽으로부터 남아메리카의 남단인 남쪽까지 길이가 4265킬로미터나 된다. 높이 솟은 안데스 산맥이 칠레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태평양의 푸른 물이 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타는 듯한 사막이 1천 마일이나 펼쳐져 있으며, 이 지역은 전세계 구리 매장량의 오분의 일을 점하고 있는 유명한 구리 원산지이고, 남쪽으로는 평평하고 광활한 호수, 협만, 꼬불꼬불한 섬들과 눈덮인 화산들이 있다. 칠레의 양끝 사이에는 중앙 계곡이 있으며, 그 곳에는 강으로 나뉘어져 바둑판 모양을 이룬 비옥한 과수원, 포도원, 목초지 및 경작지 등이 있는데, 그 곳에서 전체 주민의 사분의 삼이 안식처를 이루고 있다.

역사가로서 칠레의 물문들이란 책의 저자인 로돌포 아케베도는 자신의 나라를 고립된 섬이라고 지칭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이 방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1956년 7월 5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디 모일 장로가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나라를 헌납한 이래, 칠레인들은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왔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왔다. 모일 장로는 헌납 기도를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라고 그 나라를 축복했다.

16년 후인 1972년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수도인 산티아고에 최초의 스테이크를 조직했을 당시 칠레에 있는 교회 회원의 수는 20,000여 명에 불과했다. 11년 후인 1983년에 칠레 산티아고 성전이 헌납되었을 때는 말일성도의 수가 146,000명으로 뛰어 올랐다. 그 이후 교회의 회원 수는 매년 평균 10%이상의 비율로 증가하여 배 이상이 되었다. 교회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부인 칠레의 일곱 선교부는 매년 20,000명 이상을 교회로 데려오고 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산티아고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원주민 출신의 에두아르도 아얄라 장로는 "교회 발전의 배경이 되는 주요한 요인은 칠레

인들의 성품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잘 받아들이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선교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찾은 다음에는 그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복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칠레인들의 약 20%는 유럽 이주민들의 직계 후손이며, 또 다른 3%는 순수한 인디안 선조들의 후손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식민 시대에 스페인의 정복에 훌륭하게 맞섰던 아루카니안 인디안과 스페인 정착자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혼혈족들이다. 칠레의 역사적 고립과 강한 민주적 전통이 결합된 가운데 주민의 혈통이 혼합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을 향유하는 독립적이며, 창조적이고, 희망 차며, 우호적인 국민이 탄생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물질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칠레인들은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 합당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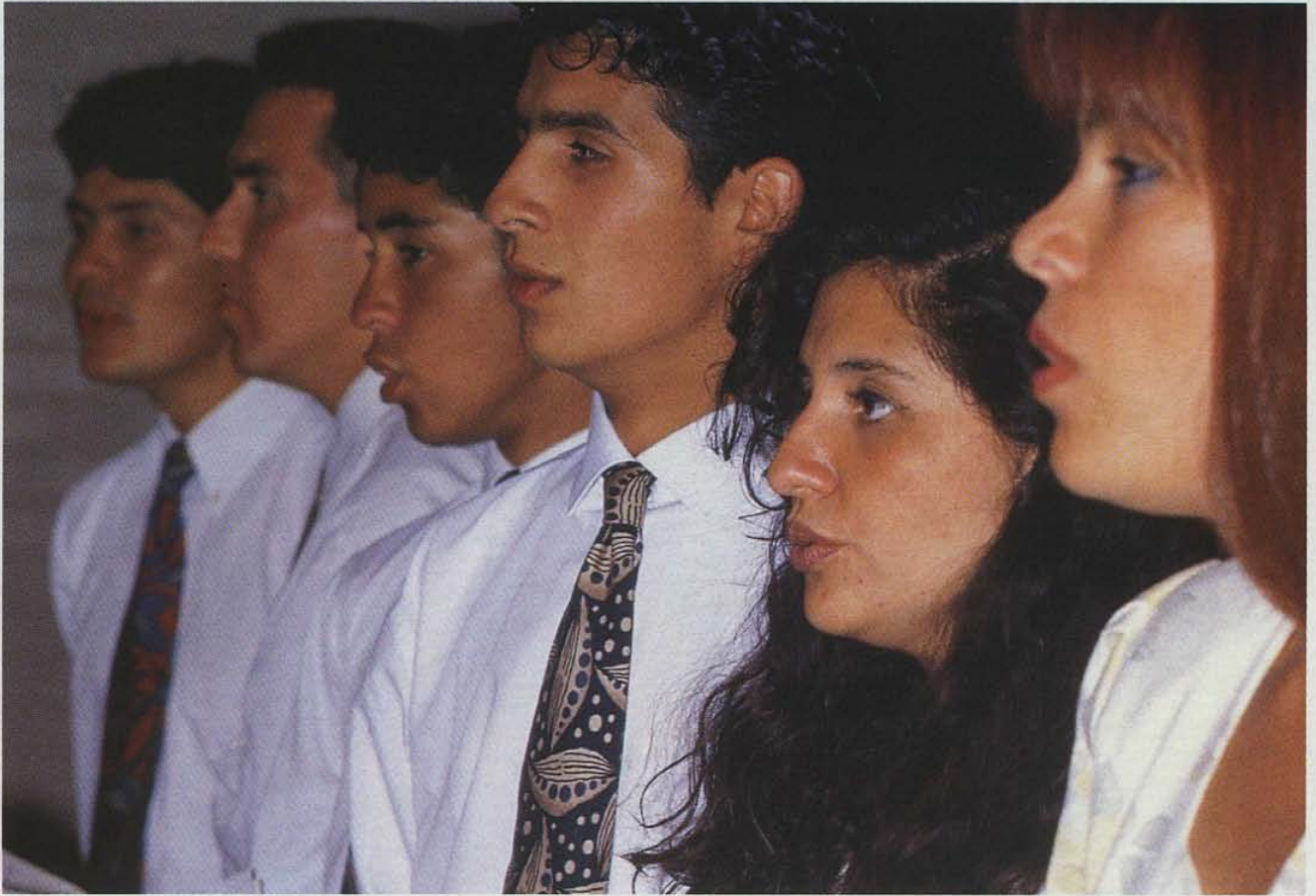
길레르모 소토 형제와 그의 아내 필라 소토 자매 및 자녀들은 지난 40년간 교회를 찾았던 많은 칠레인들과 비슷한 경우에 속한다.

"선교사들은 늘 거리에서 우리에게 인사하곤 했어요. 어느 날 선교사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물었죠. 저는 아이들이 여덟이나 되어서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잘됐네요! 저도 5남매 가정에서 자랐는걸요.'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소토 자매는 회상한다.

선교사들이 왔으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종종 저녁 시간에 함께 노래하며 게임을 즐기곤 했던 소토 가족은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담배를 금하라는 지혜의 말씀은 가정에서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가족 금기 조항에 부합되었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음악을 감독하는 전문 음악가인 길레르모 소토 형제에게는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왔다.

"10대 시절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화평과 사랑을 느꼈어요. 그러나 후에 방황하게 되었고 세상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라고 길레르모는 말한다.

1994년 소토의 자녀들은 합당한 나이가 되어 침례를 받았지만, 필라는 그녀의 남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길레르모는 참된 복음에 대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혜



비나델마르 청년 합창단. 칠레 전지역에서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자신의 와드와 지부를 강화시키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의 말씀과 맞서 싸웠다.

“저는 여러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순결하고 깨끗한 침례의 물 밖으로 나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제 자신을 그려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매우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지혜의 말씀과 맞서 싸웠던 소토 형제는 자신의 음악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 속에서 저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감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의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요즈음 소토 가정에는 길레르모와 필라의 감사 기도와 함께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침례 받기 전부터 그들이 갖고 있던 유대감은 복음에 대한 그들

의 이해가 증가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소토 부부는 산티아고 북쪽에 있는 티에라 델 푸에고 와드에서 각각 장로 정원희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는 아내와 제가 자녀들을 위해 합당한 것을 행할 수 있으며, 강건해져서 지상의 천국을 찾을 수 있는 즉,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 위에 서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저희는 그 길에 서있습니다.”라고 소토 형제는 말한다.

### “에스푸에르조 만코무나도”

칠레에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데는 그만큼 고통도 뒤따랐다. 새로운 회원들을 융화시키고 급속히 늘어나는 와드와 지부에 예배당을 제공하는 일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2년부터 1989년까지 칠레에서 교회 건축을 감독했고, 현재는 남미 남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조지 지발로스 장로는 3년 동안 300개 이상의 예배당이 칠레에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훌륭한 결정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당시 칠레에서





의 건축 경기는 침체해 있었고, 자재비와 인건비도 저렴했습니다. 몇몇 와드는 1980년대에 잠시 동안 단독 건물을 갖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을 내다보는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지발로스 장로는 말한다.

1995년에 칠레에는 거의 25개의 스테이크와 100개 이상의 와드/지부가 생겼기 때문에 “요즈음 건축건이 밀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3개의 와드가 입주하게 되며, 어떤 예배당은 6개의 와드가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라고 칠레의 교회 지역 실무 책임자인 다니엘 알메이다는 말한다.

패트리치오 라 토레를 포함한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은 불편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에 수반되는 도전과 사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 년 동안 단지 두 개의 예배당에서 10개의 와드가 모임을 했습니다.”라고 1990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스테이크가 네 개의 스테이크로 분리되는 것을 목격했던 라 토레 형제는 말한다.

현재 남 산티아고에 있는 호세 미구엘 카레라 스테이크의 신임 스테이크 부장인 라 토레 형제는 침례 및 회원 유지

과 활동률이 점증하는 원인으로 에스푸에르조 만코무나도(균형잡힌 노력)라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런 노력에는 신권 지도자들이 복음 선교사들과 함께 목표를 세우고, 활동이 미약한 회원들을 돌보며, 새로운 회원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등이 포함된다. 라 토레 형제는 균형잡힌 노력이 회원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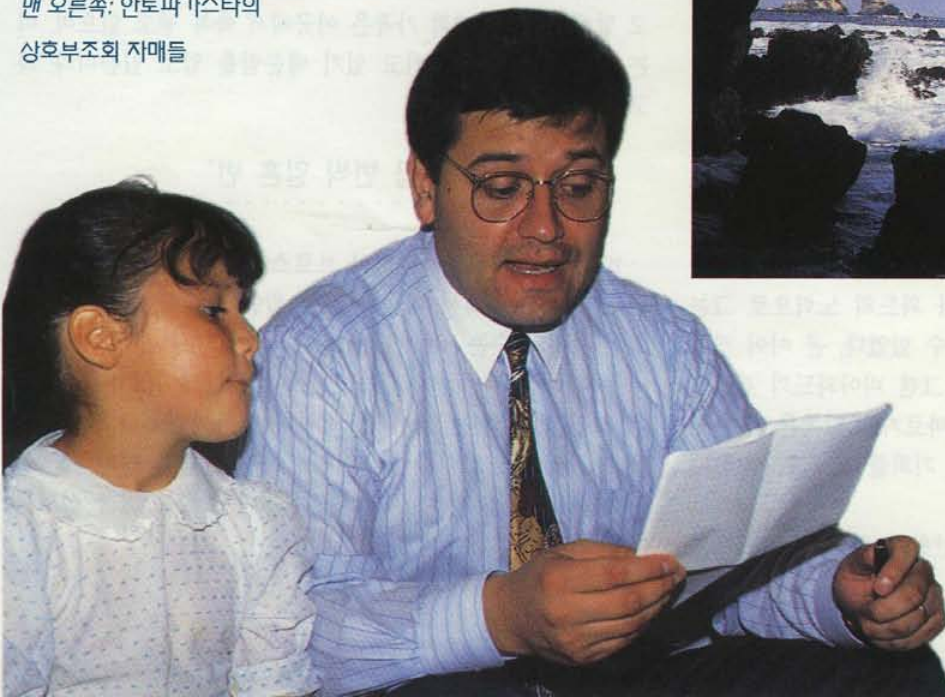
“확실히 그것은 칠레 교회에 대한 뉴스 거리입니다. 에스푸에르조 만코무나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일과 활동 촉진 및 스테이크와 와드 조직의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라고 지난 7월에 칠레 남 산티아고 선교부장에서 해임된 로저 헨드릭스는 말한다.

칠레 산티아고 북 선교부의 본 패커드 선교부장은 북 산티아고에서 최근 한달 동안에 일요일 모임 참석 수가 약 1000명씩 증가하는 이유를 균형잡힌 노력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활동이 미약한 회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왼쪽: 비나델마르의 마르샤 곤잘레스 아귀레

아래쪽: 콘셉시온의 오스카 마린이 그의 딸 이사벨과 함께 복음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 칠레의 북부 해안에 있는 암석층, “라포르타다”

맨 오른쪽: 안토파가스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우리는 이곳에서 축복 받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바르가스는 1989년 가족들과 함께 안토파가스타라는 북부의 항구 도시로 이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로베르토와 그의 아내 에리카 및 그들의 세 아들이 말일성도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환영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것이었다.

사막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는 안토파가스타는 알려진 것보다 적은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바가스 가족에게는 이 지역이 아름다운 곳이 되었다. “이곳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한 곳입니다.”라고 바르가스 자매는 말한다.

인근 구리 광산에서 토목 기사로 일하는 바르가스 형제를 활동화시키기 위한 우호적인 환대와 와드의 노력으로 그는 감독과 오랜 시간 동안 접견을 할 수 있었다. 곧 이어 장로 정원희 회장단의 부름이 주어졌다. 그런 비아와드의 감독으로 부름 받은지 3년째 되는 요즘 바르가스 감독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날 때면 예배당이 만원이 되고 추나미 경보

교회 회원인 로버트 피구에로아가 교회 집회소의 신축을 흔히 볼 수 있는 산티아고 로스 프라도스의 예배당 건축을 감동하고 있다.

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되돌아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재난이 닥친 후에 올바르게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 줍니다. 저희 가족은 이곳에서 축복 받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일곱 번씩 일흔 번”

1977년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가 산티아고 지역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을 때, 칠레에 있는 교회 회원의 수는 50,000명이 채 못되었었다.

“예견하건대 이곳에 있는 일곱 개의 스테이크가 일곱 번씩 일흔 번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측하건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맥콩키 장로는 칠레 성도들에게 말했다.

길레르모 미란다와 같은 칠레 성도들은 맥콩키 장로의 예언을 알고 있으며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봉사하고 있다. 백화점 체인을 소유하여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미란다 형제는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에서 제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 사업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sup>8</sup>라고 말한다.

미란다 형제는 산티아고에서 남동 방향으로 자동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농업 지역인 산페르난도 시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사업에 있어서 정직함과 엄격한 고용인 품행 규정으로 존경 받고 있으며 명성을 얻고 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이 제가 고용하는 비회원 종업원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가 소규모인 지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라고 미란다 형제는 말한다.

미란다 형제는 1982년 교회에 들어온 이후, 핏박과 직장에서의 좌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공했다기 보다는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백화점 체인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단이 널리 배포되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저는 화제거리의 중심이었고 저의 사업은 공격의 목표물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보다, 그의 사업이 보호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즉시 십일조를 바쳤다. 결과적으로 사업은 호전되어 갔다. 요즘은 그의 경영 철학에 대해 강연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미란다 형제는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

잠재력을 많이 지니고 있는 고용주로서 말일성도들에게 감명을 주는 칠레의 사업가로 미란다 형제만이 유일한 회원은 아니다. 잘 알려진 칠레의 극작가 루이스 리바노는 1991년 한 신문에 교회 회원들의 정직성과 근면성과 건전한 생활을 격찬하는 기사를 썼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문제가 적으면서도 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종업원 등을 선호하고 있다. 만일 내가 물론과 비물론 사이에서 고용하는 문제로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데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sup>9</sup>라고 그는 기술했다.

어업 및 산업의 중심지인 콘셉시온에서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온 회원 중 한 사람인 미구엘 레파르그는 칠레 사람들이 경제적, 직업적 배경에 상관없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일성도들에 의해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교회는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더 좋은 시민이 되고, 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나라의 대통령이 가족과 전통적인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중요성<sup>10</sup>에 대해 공공연히 말할 정도인 칠레에서는 몇몇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조차 교회의 가르침과 증증하는 영향력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

“콘셉시온 근처에 있는 후알키 시의 시장은 우리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합당한 사람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감독을 여러 번 불러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봉사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의 젊은이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책임감 있고 예절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칠레 선교부장단의 보좌인 레파르그 형제는 말한다.

남부의 한 도시에서 다른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복음 선교사들을 비방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청중들의 호기심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것은 그 작은 마을에서 일찌기 우리가 했던 적이 없는 가장 훌륭한 광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날 때, 교회와 아울러 흰 셔츠와 타이를 한 예절바른 선교사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도자가 우리에게 대해 말할 때까지 그 곳에서 그렇게 많은 침례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레파르그 형제는 말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적대가 단지 말만은 아니었다. 1980년대에는 교회를 외세로 보았던 한 폭력 집단이 전국의 교회 예배당에 200회 이상의 방화와 폭발을 일으켰다.<sup>11</sup> 그러한 습격으로 몇몇 회원이 부상당했으며, 산티아고 예배당 인근에 사는 몇몇 어린이들이 폭발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어린이들에 대한 상해로 이 집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생성되었습니다.”라고 칠레의 교회 공보 책임자인 작가 로돌포 아케베도 형제는 말한다.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칠레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가 외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인 칠레인들에 대항하여 공격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잘 다듬어져”

.....

카렌 몬탈바는 칠레 중부 해안 출신의 24명의 말일성도 젊은이들로 구성된 갯세마네 청년 합창단을 조직하여 지휘

하면서 음악 이상의 것을 듣는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신앙과 간증 및 영적인 힘을 듣고 있다. "교회는 잘 다듬어질 것입니다."라고 비냐델마르 청년 회장은 말한다.

합창단 구성을 도왔던 카렌은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진보하고 있으며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한 예로 합창단원 모두가 여러 가지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하면서도, 매일 연습하고 여행하고 선교를 위한 노변의 모임에서 복음을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연주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영을 느끼게 됩니다. 합창에 있어 가장 훌륭한 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들과 같이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교회에 바칠 수 있는 청년들의 무리를 꿈꾸어 왔습니다."라고 카렌은 말한다.

전국적으로 칠레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와드와 지부를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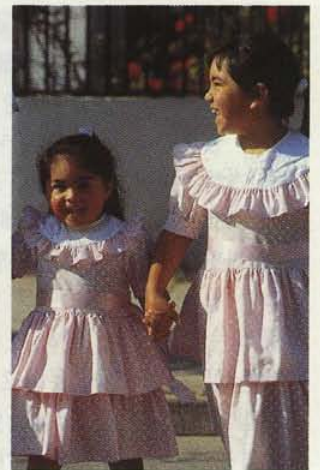
화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비냐델마르 출신으로서 선교 사업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18세의 루이스 페레이라는 "저는 제가 복음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젊은 말일성도들이 그렇듯, "저는 교회의 장래가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사업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칠레의 말일성도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초기의 선교사였던 팔리 피 프랫 장로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갖고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그들의 책임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프랫 장로를 칠

아래쪽: 아포퀸도 와드 감독단의 일원인 다니엘 메자와 그의 아내 줄레마 및 두 자녀  
 오른쪽: 1983년에 헌납된 칠레 산티아고 성전.  
 맨 오른쪽: 교회에 가고 있는 칠레의 어린이들  
 옆 페이지: 탈카후아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막 소 장로와 곤잘로 아렐라노 장로





레에 보내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많은 스테이크와 침례자들을 갖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교회 교육 기구의 책임자이며 남아메리카 남부 지역 관리 직원인 에두아르도 라마르틴은 말한다.

캘리포니아로부터 64일간의 항해 끝에 발파라이소에 도착한 프랫 장로를 환대했던 깊이 패인 초승달 모양의 이 항구는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그 항구를 향해 펼쳐 있는 가파르고 집으로 뻗뻗히 들어 찬 언덕 위에는 현재 네 개 스테이크의 말일성도들로 가득 찬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칠레에서의 수확은 진실로 위대하다. 프랫 장로가 묘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풍요로운 땅은 “신구대륙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의 하나로” 남아 있다.<sup>12</sup> □

주

1. 팔리 피 프랫 자서전, 팔리 피 프랫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5년) 361쪽

2. 같은 책, 368쪽

3. 같은 책, 365~366쪽

4. 같은 책, 364쪽

5. 세계 대백과 사전, 1993년판, 22권: “칠레”, 3:458 참조

6. 베를레 엠 알레드, 개인 일지

7. 알렌 에이 보라이코, “칠레: 신앙의 무대,” *내셔널 지오그래픽*, 1988년 7월, 67쪽

8. 대회 보고, 칠레 산티아고 지역 대회, 1977년, 9쪽

9. “Los Mormones: Una Religion Positiva” *El Pais*, 1991년 9월 17일, 14~15쪽

10. 마리아 호세 에라주리즈, “Frei Llam a J venes a Iniciar ‘Nueva Marcha’” *El Mercurio*, 1995년 1월 19일, C3쪽

11. 존 발자, “Soulmen”,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1993년 6월 20일, 18쪽

12. 프랫, 364쪽

## 초기의 일꾼들

**페**를라 가르시아는 다음 물건들을 그녀의 태소로스(보물)라고 부른다. 누렇게 바랜 칠레 교회 초기의 신문 스크랩들, 방문한 총관리 직원들의 오래된 사진들, 최초 개종자들 몇몇의 서명이 있는 낡은 성경 한 권,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남편 리카르도가 근 50년 동안 함께 나눈 기념품들. 이러한 것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사랑과 추억으로 가득 차게 한다.

가르시아 자매는 방문객들에게 그녀의 보물을 보여 줄 때마다 빠짐없이 성신의 은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녀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선교사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1950년대 말엽 칠

레에 있던 소수의 말일성도 중 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옛일을 회상한다. 회원들의 수는 적었는지 모르지만 축복은 많았다고 그녀는 전한다.

칠레에서 근대적인 선교 사업을 위해 1956년 6월 23일 베를레 엠 알레드 장로와 조셉 시 벤틀리 장로는 아르헨티나 선교부로부터 안데스 산맥을 넘어 산티아고로 왔다. “우리는 그 곳에서 혼자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라고 현재 유타 주 브리검 시에서 축복사로 봉사하고 있는 알레드 형제는 회상한다. 현재 솔트레이크 팔리스 스테

이크 팔리스 제5와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벤틀리 형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척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열심히 봉사했으며, 그것은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 회원인 로버트 피구에로아가 교회 집회소의 신축을 흔히 볼 수 있는 산티아고 로스 프라도스의 예배당 건축을 감독하고 있다.

가르시아 자매는 정원에 물을 주던 중에 장로들을 만났다. 그녀는 장로들에게 마을 밖에서 일하는 남편이 돌아온 후에 다시 와달라고 말했다. 장로들이 가르시아 형제를 만났을 때의 일을

알레드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는 우리에게 인사했으며 마치 전에 만났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친절히 맞아 주었습니다. 일단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를 놓아 주지 않곤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세 시간짜리 토론으로 바뀌었으며, 가르시아 형제는 선교사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가르시아 형제는 1966년 11월 24일 산티아고 컨추리 클럽 수영장에서 침례 받음으로써, 칠레에서 침례 받은 최초의 말일성도가 되었다. 그는 그날 다른 8명과 함께 교회에 가입했는데 그들 중 5명은 어린이들이었다. 가르시아 자매는 1967년 1월에 침례 받았다.

가르시아 형제의 농사일 때문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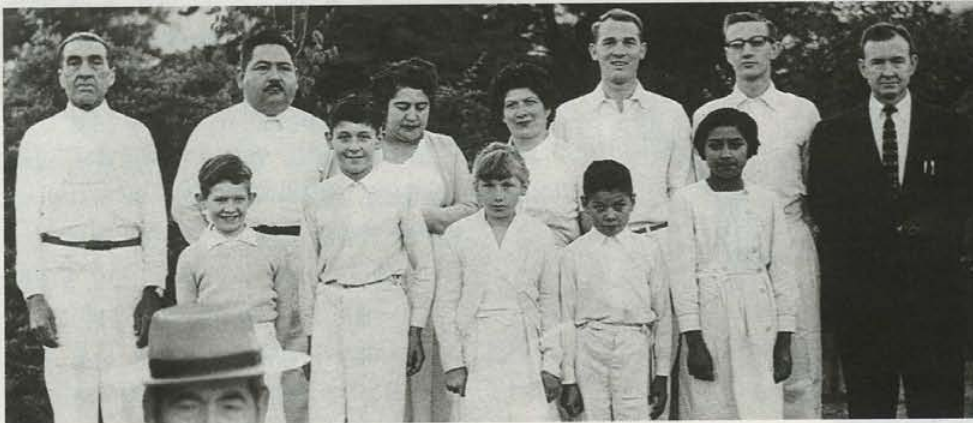
족들은 자주 이사를 다니곤 했는데, 그들이 지부가 없는 새로운 도시로 가게 될 때는 교회의 창설 회원이 되곤 했다. 해가 거듭되면서 가르시아 부부는 여러 교회 부름에서 봉사했다.

이들 부부의 딸인 페를라는 그의 가족이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느꼈던 기쁨을 회고하면서 “복음은 칠레에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리카르도는 1994년 9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 칠레 누노아 스테이크 축복사와 그의 아내가 오르간 반주를 하고 있는 산티아고 칠레 성전에서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면서 생의 마지막 해를 보냈다. 이 성전은 가르시아 자매가 리카르도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숨져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는 행복한 모습으로 임종했습니다. 남편은 ‘울지 말아요. 나는 내 일을 끝냈고 이제 갈 준비가 되었어요. 나는 당신과 자녀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끝까지 충실하도록, 그리고 나의 사랑과 함께, 내가 행복하게 떠나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된다고 전해 주시오.’라고 말했어요.”라고 가르시아 자매는 전한다. □



왼쪽: 1956년 사진에 나타난 칠레 최초의 말일성도 리카르도 가르시아. 그는 베를레 엠 알레드 장로와 조셉 시 벤들리 장로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였다. 왼쪽 위: 가르시아 형제(왼쪽에서 두 번째) 및 윌리엄 포더링햄 지부장(검은 양복)과 칠레에서 침례 받은 첫번째 개종자 그룹, 선교사들이 뒷 줄 포더링햄 지부장 바로 왼편에 있다. 오른쪽 위: 가르시아 형제의 아내, 페를라. 그녀는 칠레 교회 초기의 정다운 기억들을 갖고 있으며 기념물들을 간직해 왔다.

# 다시

세라 피처럴드  
그림: 페리 크롭



**몇**년 전에 나는 아마도 대단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원에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었다. 일자리가 생기자, 그것이 매주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 몇 달 동안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워드 회원들과도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나는 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처럼 술이나 마약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았으며 도덕적 표준도 언제나 그대로였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다고 느낄 수도 없었다.

게다가 성격마저 떨어졌으며 동물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잘 지내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알기에 옳지 못한 것을 함께 하길 원했다.

한참 근심에 잠겨 있는 나에게 어머니는 옛 합창단 선생님이 청녀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다.

그 다음 주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청녀 회장은 마치 군대 징병관 같았다. 그녀는 우리 청녀반에서 가졌던 모든 활동과 모든 봉사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었다. 몇 주의 변명 끝에 나는 결국 우리 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데 동의했다. 음식점으로 가는 길에 우리 반 청녀들은 남자 아이들과 신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회장님은 자주 그들의 대화에



# 돌아옴

동참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언가 대단하고 중요한 어떤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그러한 종류의 고통을 느꼈다. 그날 저녁의 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무렵,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들은 인생에서 내가 원했던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회장님은 이러한 나의 기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았으며 내가 언제라도 교회에서 환영받을 것이며 회장님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다해 간구했다. 그것은 실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내렸던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그분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원했다. 나는 나의 영혼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길 원했으며 영원토록 함께 지낼 그러한 친구들을 찾게 되기를 바랐다. 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나는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다시 돌아오는 길을 발견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는 다시 교회 모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 복음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희망을 안겨 주었다. 내가 이제껏 한 일 중 가장 훌륭했던 일은 바로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



# 한 그릇의 땅콩

로널드 더블류 록

그림: 제리 하스튼  
사진 촬영: 제드 클라크



내가 십대의 소년이었을 때, 그 나이 또래의 소년들이 다 그렇듯, 나는 미래에 대한 혼란스러움, 불안함 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십대들과 마찬가지로, 내 걱정거리를 가지고 부모님께 가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분들이 너무 구세대라고 생각했다. 나의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부모님이 늘 염려해 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말을 거시려는 그 분들의 시도를 나는 언제나 외면해 버렸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식료품 한 보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길모퉁이 가게에 들르셔서 몇 가지를 고르셨는데 그 중에는 구운 땅콩이 가득 든 자루도 있었다. 그리고 붉은색 자기 그릇을 찾아오시더니 자루에 들은 것을 거기에다 비우셨다. 그런 다음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잠시만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물어 보셨다. 아버지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으며 그것을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로부터 땅콩이 절반쯤 없어질 무렵,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확신있으며 완곡한 방법으로 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린 소년일 때부터 가르쳐 왔던 진리에 대하여 재확인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단지 아버지로서가 아닌 친구, 그것도 훨씬 나이가 많고 현명한 친구로서 이야기했다.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여태껏 알지 못했던

풍부한 정보와 경험들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 시국이나 도덕적 쟁점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다. 그 대신, 나는 나보다 35년이 앞선 인생 선배의 실수와 성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었다.

그것이 처음으로 가진 “땅콩 모임”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 선교 사업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와 힘찬 포옹을 하였으며 그 품에서 그의 힘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동안 나에게로 손을 뻗어 주고, 그 이후로 내 인생을 인도해 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함께 나누어 준 아버지에게 늘 감사할 것이다. 아버지의 진실된 우정과 결코 위협적이지 않았던 나에게로의 접근은 불안정한 시기에 닳의 역할을 하였으며 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고자 하는 방법의 한 모범이 되었다. □





그림: 로버트 티 베허, 예수님께서 니파이 백성들의 기록을 가져 오라 하심

예수님께서 니파이 백성들이 받은 모든 경전들을 사도들에게 풀이 전하신 다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가 갖지 아니한 다른 경전을 기록하기 바라노라."  
그리고 니파이에게 이르셨다. "네가 관직하고 있는 기록을 가져 오라... 니파이가 기록을 가져와 그 앞에 놓으매"(니파이삼서 23:6~8)



**40** 년 전 칠레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납했을 때  
그 지역의 교회 회원들은  
복음 메시지를 이웃에  
전할 책임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들은 한 해에  
20,000명이란  
개종자를 거두어 들이는  
축복을 받고 있다.  
“칠레 — 비옥한 포도원”  
34쪽 참조

